
*Middlemarch*에 있어서의
人間的 紐帶와 共感意識

이를 教育學碩士學位 論文으로 提出함.



濟州大學校 教育大學院 英語教育專攻

提出者 康 明 孝

指導教授 金 秀 宗

1982 學年度

康明孝의 碩士學位論文을 認准함

濟州大學校 教育大學院

主 審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㉞

副 審 ㉞

副 審 ㉞

1982學年度

目 次

I. 序 論	1
II. 人間存在의 認識過程	4
A. 空間的 認識	4
B. 時間的 認識	13
III. 삶과 地上의 共存的 價値	22
IV. 人間的 紐帶와 共感意識	33
V. 結 論	41
Summary in English	46
Bibliography	47



I. 序 論

George Eliot의 小説이 成功한 原因은 주로 두가지 側面에서 考察될 수 있다. 하나는 물론 藝術的 價値의 卓越性이고 다른 하나는 作品속에 강렬히 투영되어 있는 作家의 倫理意識이다.

藝術性에 관한 讀者와 批評家들의 讚美가운데는 英國小説의 傳統的인 특징 — 스토리의 뛰어난 展開, real 한 描寫, wit가 豊富하고 自然스러우면서도 흥미를 끄는 對話, 그리고 哀愁 (pathos)와 유머 (humour)에 넘치는 人間像 등 —의 確立에 대한 評價가 主流를 이루고 있다:

... according to my judgement such humour, pathos, vivid presentation and nice observation have not been exhibited (in this style) since the "Vicar of Wakefield."¹⁾

이러한 藝術的 卓越성과 더불어 G. Eliot는 人間의 倫理意識과 고결하고 品位있는 人間性에 대한 深遠한 洞察을 통하여 讀者들을 感動시키고 있다. 이 점에 대해서 Alexander Main은 "그녀의 作品을 올바르게 理解하고 있는 사람에게는, 이러한 文學이 단순한 이야기로 보이거나 氣分轉換을 위한 읽을거리로 간주될 수는 없다. G. Eliot는 그녀의 使命을 확대시키고 명예스러운 것으로 만들었다. 그녀는 小説을 가장 莊重하고 嚴格한 倫理的 眞實을 傳達하는 形態로 創造함으로써 小説을 永遠히 神聖化하였다" ²⁾ 라고 진술하여 G. Eliot가 作品을 통해 發現시킨 倫理意識에 讚辭를 보내고 있다.

그러나 小説이라는 藝術的 매체를 통하여 作家의 倫理觀이 너무 강렬하게 浮刻되는 데는 問題가 있었다. 批評家들이 G. Eliot의 後期作品이 前記作品보다 뒤떨어진다고 보는 것도 바로 이와 같은 理由 때문이다. 前期作品들은 주로 따뜻한 人間愛에 뿌리를 둔 人間性에 대한 깊은 洞察과 뛰어난 表現力에 의하여 素朴한 사람들의 情感을 움직여 놓았다. 그러나 後期作品에서는 이와 같은 寫實的 創作力에 의한 方法이 아니고, 오직 "偉대한 教師"로서의 倫理를 讀者에게 講論하는데 그쳤다는 것이다. 그래서 Louis Cazamian은 G. Eliot의 名聲의 쇠퇴를 다음과 같이 說明하고 있다:

- 1) cf. Gordon S. Haight (ed.), *The George Eliot Letters* Vol. II (London: New Haven and Oxford Univ. Press, 1956), p. 269.
- 2) Alexander Main, *Wise, Witty and Tender Sayings* (London: Kegan Paul & Co., 1872 Reprinted 1933), Preface.

.....George Eliot is a writer whose fame is menaced. She is a victim of the discredit which opinion today throws upon her generation, and which will pass with time. Graver, however, are the reasons for disfavour which concern her personally. The upholders of tradition have never forgiven her bold ventures in philosophic thought, nor excused that act in her life which, though it agreed with the ethics of the heart, jarred with the principles admitted by custom. Critical spirits, or lovers of pure art, are not without resenting either the moderation of her thought, or the weightiness which her intellectuality often gives her prose. Some have always looked upon her with mistrust, while many would be tempted to think that she was too prudent in her opinions. Even among her admirers, there are few who do not find in her work a faint suspicion of heaviness. In the study of her novels, therefore, one must keep oneself immune from a prejudiced hostility which, undoubtedly, is unjust, and at the same time not be influenced by the intemperate zeal which might be aroused by the feeling that one was pleading a cause.

All the intellectuality and fondness for reasoning which seemed to be part and parcel of her very being, deprived or tended to deprive her of a certain happy spontaneity, afforded her less scope for the play of instinct, and made purely artistic creation less natural to her, while rendering more natural the painstaking efforts of artificial labour. Since her vocation was to write, and to be a novelist, she did much during the first thirty years of her life to direct what was to be her gift of invention towards lucid and dry forms of expression.³⁾

다시 말해서 人間性의 非合理的인 면과 本能的인 면을 도외시키고 있는 점, 왕성한 想像力의 缺如 및 知性과 感性의 分離, 倫理性에 대한 과중한 偏執 등의 결함을 指摘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G.Eliot의 作品에 깊은 理解를 보였던 Leslie Stephen까지도, 그녀의 初期成功은 作家의 幼年時의 追憶이 담긴 England의 田園地帶를 直接的으로 描寫한 덕택이었고, 後期作品은 描寫의 直接性이 감소한 데에 그 缺陷이 있음을 다음과 같이 指摘하고 있다:

3) Emile Legouis & Louis Cazamian, *A History of English Literature* (London: J. M. Dent & Sons, 1954), pp. 1212-13.

George Eliot's works, as I have read, have not, at the present day, quite so high a position as was assigned to them by contemporary enthusiasm. That is a common phenomenon enough; and, in her case, I take it to be due chiefly to the partial misdirection of her powers in the later period.⁴⁾

그밖에 George Saintsbury도 Stephen과 마찬가지로의 見解를 피력하며 最初의 네 作品은 最上의 作品으로 評價하고 있지만 後期作品에 대해서는 낮게 評價하고 있다.⁵⁾ 이렇게 볼 때 作家의 人生成熟에 따른 知性의 高揚이 결국 道德講論式의 作風을 進行시켰고, 그 結果 一般 讀者들로부터 共感을 얻지 못하는 逆효과를 招來한 것이다. 後期作品인 *Romola*, *Felix Holt*, *Daniel Deronda* 등에서는 作家의 知性이 지나치게 노출되고 強調되어 있다. 따라서 마치 作家가 realist로서의 旺盛한 創造力을 상실한 듯 한 印象을 주어 批評家들로부터 自然스러움을 잃었다든지, 思考過剩이라든지 하는 비난을 받고 있다. 後期作品에 대한 批判과 評價切下는 바로 이러한 데서 그 맥락을 찾을 수 있다.

그렇다고해서 G. Eliot가 後期에와서 정말 作家로서 예민한 直觀力과 旺盛한 想像力을 상실하였다고 斷定지을 수는 없다. 물론 人間의 思考的 機能이 어느 정도 直觀的·知覺力을 犧牲시키면서 發展해 나간다는 側面에서 그러한 解釋도 可能하겠지만, 오히려 人生成熟에 따라 知성과 感性이라는 두 개의 資質이 相補하는 가운데 作家의 創作力과 想像力도 豊富해진다고 볼 수도 있다. Eliot도 이와 같은 肯定的 方向으로 作家의 成熟을 이룩하였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評價에 대한 타당성은 後期作品을 면밀히 分析하고 研究함으로써 可能해질 수 있을 것이다. G. Eliot를 代表하는 *Middlemarch*는 이러한 점에서 研究의 價値가 높다고 하겠다. G. Eliot는 *Middlemarch*에서 그의 深遠한 知성과 感性을 거의 完璧에 가까울만큼 융화시켜 그 機能을 발휘시킴으로써 realist로서, moralist로서의 作家의 偉大性을 充實히 立證해 주고 있다.

G. Eliot가 小說家로서 지니고 있는 가장 큰 特色은 感性의 예리함과 深遠한 知성을 함께 所有하고 있다는 점이다. 요컨대 *Adam Bede* (1859), *The Mill on the Floss* (1860), *Silas Marner* (1861), *Romola* (1863), *Felix Holt* (1866) 등의 作品을 創作하면서 G. Eliot의 知성과 感性도 많은 變化와 發展을 가져왔으며 *Middlemarch* (1872)에 이르러서는 “成熟으로의 旅程”에 올라섰다고 하겠다. 그러므로 여러 評論家들이 *Middlemarch*가 G.

4) Leslie Stephen, *George Eliot: English Men of Letters* (London: Macmillan 1902), p.206.

5) George Saintsbury, *The English Novel* (London: J.M. Dent & Sons Ltd., 1919), p.249.

Eliot의 知性과 感性이 가장 圓熟한 均衡을 이루고 있는 代表的 作品으로 評價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하겠다.

따라서 本論文은 *Middlemarch*를 통해서 어떻게 知性과 感性이 完全히 융합하였으며 어떻게 人間關係의 描寫를 마치 섬유를 짜듯이 것처럼 重厚한 것으로 만들 수 있었는지를 人間存在의 認識過程, 삶과 地上의 共存的 價値, 觀點의 移動을 통하여 얻은 人間的 紐帶와 共感意識 등으로 나누어 考察하고자 한다.

II. 人間存在의 認識過程

A. 空間的 認識

*Middlemarch*는 成熟한 知性과 銳敏한 感性을 同時에 지닌 한 女流作家가 人間成熟의 歷程이 어떠한 것인가를 속속들이 밝혀주는 成人文學이다. 人間의 諸相이 생생하게 描寫되고 있는 이 作品에서 作家는 19 C. 初期 英國 地方都市 生活의 모든 面을 描寫하였고, 社會的 地位와 職業이 다른 여러 類型의 人間들에게 當時의 社會情況이 어떻게 作用했는가를 探究하였다. 예컨대, 英國 最初의 선거법 改正案 통과를 전후하여 議會政治의 改革에 따른 政治的 變化, 藥의 進歩에 따른 醫學上의 變革, 鐵道의 新設로 인한 動搖와 變化, 農業上의 變革 등 社會的 側面의 여러가지 事件과 함께 수많은 集團場面을 背景으로 여러 階層의 人物들이 登場한다. 學者·牧師·醫師·銀行家·市長·地主·辯護士·競賣人·말장사·農場主·小作人·직공·商人 등 男女 각 階層, 여러 職業의 生態가 real하게 描寫되어 하나의 人間市場을 形成하고 있다. 그러나 作家가 指向한 것은 단순히 19 C. 初期 英國 地方都市의 包括的인 概觀圖를 提示하는 데 있는 것만은 아니다. 社會의 分析만이 作家의 目標가 아니라, 그녀는 그것을 통해서 人間存在 方式의 本質을 探究하려고 한 것이다.

G. Eliot는 人間의 存在方式이 眞空狀態에 있지 않다는 事實을 명백히 把握하고 있었다. 다시 말해 人生은 現實의 問題이다. 人間이라는 不可思議한 存在는 어느 時代 어느 場所에서나 連續되는 하나하나의 삶에 대해서 기뻐하고 슬퍼한다. 그러나 그것의 大部分은 歷史에 기록되지도 않고 口傳되지도 않는다. 단지 한 人間에게 日常의 기쁨과 슬픔만을 안겨 준채 지워지고 잊혀져 간다. 그러나 G. Eliot는 그것이 人間의 삶이고 人生의 崇高한 眞實이라는 점을 讀者들이 共感해주기를 바랬던 것이다. 이처럼 삶의 諸問題를 眞摯하게 다루어 가고 있는 점에서 이 小説은 G. Eliot에게 成熟된 作家의 地位를 부여해주고 있다. 그러나 이 成熟은 단기간내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서서히 그러면서 여러 번의 變轉 끝에 到達된 結晶體이다. 그러므로 G. Eliot가 創作過程의 긴 旅路 끝에 가까스로 到達한 山頂의 美는 바로 이 *Middlemarch*에 眞實히 나타나 있다. *Middlemarch*를 構成하는 諸要素를 통해 作家에 대한 接近을 시도해보는 것도 이러한 데서 그 意味를 찾을 수 있다.

G. Eliot는 作中人物을 먼저 特定の 空間에 定着시켜 그 空間의 多種多様な 人物과의 關係를 노출시키는 일로부터 스토리를 시작한다. 人間存在는 無수한 人生이 相互接觸하는 지점에 實在하고 있기 때문에, 누가 그리고 무엇이 人間存在에 影響을 주고 있는지 現實生活에서 感知할 수 없다. 그러므로 作家는 人間關係의 微妙함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敘述하고 있다:

But any one watching keenly the stealthy convergence of human lots, sees a slow preparation of effects from one life on another, which tells like a calculated irony on the indifference or the frozen stare with which we look at our un-introduced neighbour. Destiny stands by sarcastic with our *dramatis personae* folded in her hane.⁶⁾

즉 우리들은 우리와는 전혀 無關係한 것이라고 여기고 있더라도 運命의 神의 짓궂은 장난에 의해서 은밀하게 關聯이 맺어진다는 主張이다. 그러나 이것은 곧 Thomas Hardy의 小說에서 보이는 것과 같은, 人間의 能力을 초월한 盲目的인 運命이 人間을 농락하고 있다는 말은 아니다. 아무리 正當하고 高貴한 意慾이나 所望이라 하더라도 妨害받기도 하고 挫折되는 것을 우리는 흔히 볼 수 있다. 그러나 그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여러가지 要素가 거미줄⁷⁾처럼 얽히고 설켜서 초래되는 結果로서, 人間存在의 움직임은 一面的 觀點에서 본다면, 運命의 神의 장난이라고 생각되리만큼 갖가지의 複雜性和 神秘的 相關關係에 의해서 左右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運命의 장난을 저주하기 전에 우리들은 人間生活의 多樣性和 微妙한 相互作用에 注目해야 된다는 점을 G. Eliot는 力說하고 있다:

Certainly those determining acts of her life were not ideally beautiful. They were the mixed result of young and noble impulse struggling amidst the conditions of an imperfect social state, in which great feelings will often take the aspect of error, and great faith the aspect of illusion. For there is no creature whose inward being is so strong that it is not greatly determined by what lies outside it(p.896).

-
- 6) George Eliot, *Middlemarch* (Middlesex: Penguin Books, 1965), p.142. 以下 *Middlemarch* 本文의 引用은 本 text 에 의하며 引用文 末尾의 괄호 속에 page 를 表示하기로 한다.
- 7) cf. R. Stump, *Movement and Vision in George Eliot's Novels* (Seattle: Univ. of Washington Press, 1959), pp.136-142; Benard J. Paris, *Experiments in Life, George Eliot's Quest for Values* (Detroit: Wayne Univ. Press, 1965), pp. 33-41; W. J. Harvey, *The Art of George Eliot* (London: Chatto & Windus, 1961), pp. 205-6. George Eliot 는 이 作品뿐만 아니라 다른 作品, 또는 서한에서도 'web'의 隱喻를 자주 使用하고 있다. 이는 人間存在가 하나의 複雜한 有機體로서 갖가지 現象이 複雜하게 얽혀 있음을 意味하는 것이다.

이것은 이 作品의 Finale에서 Dorothea의 生涯에 대하여 作家가 부여한 註釋이지만, 어기에 敘述된 것처럼 헤아릴 수 없는 人間生活의 實體에 다소라도 接近하기 위해서는 人間生活의 무수한 局面을 그 根源까지 거슬러 올라가 조사해야 된다. 그래서 갖가지 남모르는 人間 運命의 漸次的 集合에 의해서 야기되는 여러가지 微細한 印象이 人物의 深層속에 成長하여 가는 過程을 摸索할 必要가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G. Eliot는 먼저 多種多樣的 人物을 特定的 場에 定着시키는 데서부터 스토리를 展開한다. 예컨대 Dorothea를 우선 “…… the Brooke connections, though not exactly aristocratic, were unquestionably ‘good’” (p. 29) 이라고 단정해 놓고 있다. 곧 19C初期 英國中部地方都市인 *Middlemarch*에 있는 中流家庭의 딸이라는 屬性에서 Dorothea의 實體를 명백히 밝히는 하나의 열쇠를 作家는 찾아내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 地方都市의 性格을 분명히 해두어야 한다. 한 都市의 性格은 地理的 條件에 의해서도 決定되지만 가장 重要的 要素는 그 住民들이며, 그들의 生活感情인 것이다. 이것을 表現하기 위해서 作家가 어떤 手法을 使用하였는지 먼저 外的特性에 대한 接近法을 考察해 보기로 한다.

가능한 한 모든 角度에서 人間에의 接近을 시도한 G. Eliot는 主要人物은 물론 모든 副次的 人物의 외모·몸짓·복장 등에 대한 詳細한 描寫를 소홀히 하지 않고 있다. 예컨대 Mr. Brooke는 “at one time”⁸⁾이나 “up to a certain point”⁹⁾와 같은 항상 즐겨쓰는 語句의 反復에 의해서 특징지워진다. 그러나 G. Eliot가 *Middlemarch*의 主要人物을 描寫하는 手法은 한층더 多樣하고 包括的이다. 外觀에 의하여 人物을 評價하려는 사람은 자칫 오류를 범하기 쉽다고 여겼던 作家¹⁰⁾는 人物의 外部에 보이는 特性을 描寫하는 것만으로는 결코 만족하지 않았다. 예컨대 Mr. Bulstrode는 언제나 낮은 목소리로 이야기하고 다른 사람의 이야기에는 정중하게 귀를 기울인다. 이것은 이 銀行家가 過去의 罪過를 위장하려는 陰險한 性格에 대한 描寫로 說明될 수 있다. 그러나 作家는 “Do not imagine his sickly aspect to have been of the yellow, black-haired sort: he had a pale blond skin, thin grey-besprinkled brown hair, light-grey eyes, and a large forehead” (p.151) 라고 말하여 諷

8) cf. Cabinet Edition, *The Works of George Eliot* (Edinburgh and London: William Blackwood & Sons, 1908-11), Vol. I, p.21; p.22; p.25; p.65; p.109; p.117; p.118; p.120; Vol. II, p.6.

9) cf. *The Works of George Eliot*, Vol. I, p.57; p.77; p.79; p.94; Vol. II, p.167; p.322; p.352; Vol. III, p.436.

10) cf. *The Works of George Eliot*, Vol. II, p.162. George Eliot는 *Daniel Deronda*에 있어서도 “Attempts at description are stupid: who can all at once describe a human being? even when he is presented to us we only begin that knowledge of his appearance which must be completed by innumerable impressions under differing circumstances. We recognise the alphabet; we are not sure of the language.” 라고 敘述하며 外觀的 敘述이 人間의 眞實을 傳할 수 없음을 強調하고 있다.

者로 하여금 外觀으로 想像할 수 있는 것과 다른 모습을 지닌 것에 注目하게 한다.

Lydgate가 Mr. Bulstrode에게 매수당하여 Raffles 殺害청탁을 받았다고, 根據도 없이 Lydgate를 疑心하는 Mrs. Dollop의 마음에는 “... his inside was that black as if the hair of his head knoved the thoughts of his heart.” (p.775) 라는 생각이 떠오른다. Lydgate의 머리칼이 검은 것은 事實이지만, 그는 Mrs. Dollop의 疑心을 살 만한 罪는 犯하지 않았다. 外部와 内部를 단순히 결부시킨 Mrs. Dollop의 誤解는 그 社會의 一般的 경향이며, Lydgate를 둘러싼 周圍는 그와 같은 誤解를 빚어내는, 성급한 判斷으로 世論을 形成하는 社會임을 作家는 暗示하는 것이다. 그러나 人物의 外觀이 重要的 意味를 지니는 일도 있다. 그럴 경우에 作家는 그것이 주변사람들의 生活 및 倫理에 關聯해서 지니는 意味를 분명하게 하려고 詳細히 敘述한다. 예컨대 Rosamond의 육체적 매력— 님프처럼 훌쩍한 자태, 우아한 목과 뺨, 금발¹¹⁾— 이 反復된다. Casaubon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야윈 몸, 켈썩한 안색, 붉은 기가 감도는 회색 머리칼, 우푼 파인 눈¹²⁾ 따위의 그 身體的 특징이 反復되면서 表現된다.

Rosamond의 外形美는 Lydgate의 마음을 뒤흔들어 마침내 그녀에게 求婚하게 하는 原因이 되고, 結婚後에도 그녀가 Lydgate를 지배하는데 있어서 큰 역할을 해내고 있다. Casaubon의 外形美는 막연한 憧憬에 가득찬 Dorothea에게 그의 學者的인 印象을 주므로서, 그녀로 하여금 老學者를 향한 헌신을 할 수 있게 하는 原因이 된다. 여기에서 注目해야 될 事實은 人物의 外觀提示에 있어서 여러 다른 사람들의 判斷이 附加되는 점이다. 다시 말해 Dorothea에게는 Casaubon이 “He is one of the most distinguished-looking men I ever saw” (p.42) 라고 보이지만, 그녀의 동생 Celia에게는 “그 입의 한 구석에는 무서운 惡意로 가득 차 있다”¹³⁾ 고 보여진다. 그런가 하면 Mrs. Cadwallader에게는 “... he looks like a death's head skinned over for the occasion” (p.117)로 보이는 것이다. 이와 같이 어느 한 사람의 외모에 대해 各種 各색의 判斷이 提示되는 것은 자칫 외모만으로 그릇된 評價를 내리기 쉬운 人間의 偏狹性을 指摘하기 위한 것이다. 作家는 바로 그와 같은 暗示的方法을 통해 모순되고 不合理한 社會實態를 浮刻시키려 한 것이다.

한 人物이 評價되는 過程에서 이처럼 多角的인 方法을 使用함으로써, 그 人物의 個性을 보다 克明化시킬 수 있음은 물론 評價를 내리는 주변 人物들의 性格 또한 多樣하게 提示될 수 있다는 데서 G. Eliot가 택한 性格創造方法의 우수성이 있는 것이다. 예컨대 Lydgate는, 온화함과 친절함을 상기시키는 Dorothea의 “the rounded infantine mouth and cheek” (p.851)

11) cf. *The Works of George Eliot*, Vol. I, p.140 ; p.143 ; p.168 ; pp.174-5 ; p.240 ; p.248 ; p.415 ; Vol. II, p.33 ; p.241 ; Vol. III, p.92 ; p.398.

12) cf. *The Works of George Eliot*, Vol. I, p.13 ; p.21 ; p.26 ; p.84 ; p.106 ; p.135 ; p.321 ; p.331.

13) cf. *The Works of George Eliot*, Vol. V, p.331.

과 같은 외모에 매혹되어서 그녀가 지닌 고결한 마음의 美에는 注意를 기울이지 않는다. 또한 平凡하면서 마음씨 고운 Mary에게도, 훌륭한 아가씨라는 말을 듣기 전까지는 마음을 두지 않았다. 女性에 대한 Lydgate의 이러한 反應은 그의 “通俗性的 얼룩”(spots of commonness)(p.179)의 뚜렷한 表出이다. “He cared not only for ‘cases’ but for John and Elizabeth, especially Elizabeth”(p.174)라는 말은 그가 女性에게 특히 弱한 男性이라는 것을 說明해준다. 또한 Casaubon의 용모에서 哲學者 Locke를 聯想하는 Dorothea도 眞實을 보는 눈을 갖지 못한 女性이며, 반면에 Celia와 Mrs. Cadwallader는 外觀만으로 人間을 評價하려는 低級한 女性임을 意味한다. Mary를 “지독히도 못생긴 처녀”라고 경멸하는 Mrs. Vincy와는 反對로, Mary에게 特有한 美를 인정하는 Fred는 게으르고 방종스러운 靑年이지만, Mary의 美를 認識한다는 점에서 자상한 마음씨의 所有者라는 것을 보여 주며, Caleb Carth가 그것을 “... he had the highest opinion of Fred, was sure the lad would turn out well—an open affectionate fellow, with a good bottom to his character—you might trust him for anything.”(p.264)라고 보증한다. 또한 Mrs. Farebrother가 Mary를 印象이 좋은 아가씨라고 느끼는 것도 그녀가 外觀, 財産, 社會的 地位에 의한 人物評價를 내리는 Mrs. Vincy와는 다른 부류의 女性이라는 점을 暗示한다.

Dorothea는 미모의 所有者이지만 그 實體가 作家에 의해 敘述적으로 노출되는 것이 아니라 그녀를 둘러싸고 있는 주변人物들의 間接적인 評價와 그녀의 對人關係를 통해 漸增적으로 노출된다. 따라서 讀者는 그녀의 외모에 대해 自然스런 共感을 하게 된다. 예컨대 그녀의 큰 두눈은 지나치리만큼 이상하게 눈에 띄고 宗教的 暗示를 하고 있으며, 매우 賢明한 女性이기는 하나 동생 Celia보다 一般的 常識이 결여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視點이 다소 옳다는 것은 그녀와 Sir James와의 關係에 의해서 立證된다. Sir James는 Dorothea를 아내로서 바람직한 女性이라고 친절하게 대하지만 그녀쪽에서는 동생인 Celia를 원하고 있지 않나 하고 誤解한다. Celia는 언니에게 “... you always see what nobody else sees; it is impossible to satisfy you; yet you never see what is quite plain. That’s your way, Dodo.”(p.59)라고 언니의 결점을 指摘한다.

이처럼 世上을 위해 봉사하려는 열렬한 渴望을 가진 고결한 마음은 現實에 대한 無知로 인해서 오히려 錯覺과 誤謬의 形態로 나타나서 그 청순한 마음과 아름다운 용모도 눈에 띄지 않게 되는 것이다. 나이 많은 변호사 Mr. Standish와 中年의 독신자 Mr. Chichely의 말은 Dorothea에 대한 一般의 評價를 代表하고 있다. 前者가 “A fine woman, Miss Brooke! an uncommonly fine woman, by God!”(p.115)라고 감탄하는데 반하여 後者는 “Yes, but not my style of woman. I like a woman who lays herself out a little more to

please us. There should be a little filigree about a woman — something of the coquette” (p.115) 라고 말하며 難色을 표한다. 그러나 後에 Mr. Chichely도 Dorothea 를 讚美하게 된다. Ladislaw 마저도 Dorothea 를 Casaubon의 新婦감으로 처음 보았을 때는 Casaubon에 대한 反感때문에 偏見을 가지고 Lydgate와 마찬가지로 “... she must be an unpleasant girl ...” (p.105) 라고 단정지어 버린다.

이와 같이 外的 特性을 통해서 評價되는 쪽과 評價하는 쪽 쌍방의 性格을 示唆하는 手法은 初期의 作品과 比較하면 현저하게 複雜性을 더하고 있다. 복장이라는 外的 要素 등도 內的 生命과의 微妙한 關係에서 다루어진다. 더우기 自然現象, 風景이나 室內의 모습과 같은 外的 要素의 敘述에는 作家의 깊은 洞察이 엿보인다. 물론 *Middlemarch*에 있어서는 初期의 作品과 比較할 때 自然描寫는 훨씬 적다. 그 理由는 스토리의 背景이 田園地帶가 아니라 都市인 점도 있겠지만 多様な 人物들의 複雜한 相互關係에 重點을 두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겠다.

그러나 가끔 自然的 背景이 描寫되는 곳에서는, 반드시 一時的인 情調에 상응하는 단순한 것이 아니라, 深遠한 意味를 간직한 것이 되고 있다.

젯빛으로 찌푸려져 있지만 비는 내리지 않는 11월의 어느날 아침, Dorothea는 伯父와 Celia와 함께 Lowick를 訪問하여 처음으로 Casaubon의 邸宅을 보게 된다. 이 저녁의 陰鬱함¹⁴⁾은 어두운 背景과 함께 “In this latter end of autumn, with a sparse remnant of yellow leaves falling slowly athwart the dark evergreens in a stillness without sunshine, the house too had an air of autumnal decline, ...” (p.99) 라고 詳細하게 說明되고 있다. Celia는 이처럼 어두운 雰圍氣를 싫어하지만 Dorothea는 그와 반대로 저택이나 정원을 모두 神聖하게 여긴다. 그러나 新婦旅行에서 돌아온 그녀는 전혀 판단의 印象을 받는다. 1月중순 夫婦가 Lowick 저택의 玄關에 내려섰을 때 눈이 약간 내리고 있어서 그 어두운 날씨가 저택과 그녀의 방에 한층 쓸쓸함을 더해주었다. 그리고 “The very furniture in the room seemed to have shrunk since she saw it before ...” (p.306) 라고 描寫되어 있다. Lowick 저택의 모습은 이 小說에서 가장 눈에 띄는 自然描寫로서 Dorothea의 다른 印象을 對照시킴으로서 그녀의 內的感情을 表出시키고 그 結婚生活의 實態를 상징시켜 준다.

微風이 살랑거리는 아름다운 가을날 3時경, Dorothea는 나무로 그늘진 길을 지나며 희망에 떨리는 想念을 象徵하는 듯한 상쾌한 가을바람의 공원쪽으로 발을 재촉한다. Ladislaw가 꽃처럼 그윽한 향기를 지닌 Dorothea를 보게 되는 때는 어느 맑게 갠 아침이다. 또한

14) Casaubon에 관해서는 비좁고 어두운 幽閉의 場所의 image가 再三 되풀이 된다.

Rosamond의 방에서 뜻밖에 Ladislaw의 모습을 發見한 Dorothea가, 그 일로 말미암아 야기된 무서운 苦惱에서 겨우 벗어날 수 있다고 생각하며, 오히려 그들을 위하여 어떤 일을 하면 좋을까를 다음과 같이 고민하게 된다:

....., and there was light piercing into the room. She opened her curtains and looked out towards the bit of road that lay in view, with fields beyond, outside the entrance-gates. On the road there was a man with a bundle on his back and a woman carrying her baby; in the field she could see figures moving—perhaps the shepherd with his dog. Far off in the bending sky was the pearly light, and she felt the largeness of the world and the manifold wakings of men to labour and endurance. She was a part of that involuntary, palpitating life, and could neither look out on it from her luxurious shelter as a mere spectator, nor hide her eyes in selfish complaining (p.846).

이들의 경우에 自然은 作中人物의 感情과 密着해 있고 특히 위의 引用文의 마지막 部分에서 “She was a part of that involuntary, palpitating life …”라고 作家가 敘述할 때, 自然은 內的生命에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서 깊은 意味가 주어지고 있다. 그러나 自然은 어느 누구에게나 同一한 영향을 끼치는 것은 아니다. 自然을 사랑하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有利하게 作用하지 않는다. 예컨대 Mr. Bulstrode나 Raffles의 경우, 그들의 狀況的 感情과는 오히려 반대의 自然現象이 描寫되는 것은 注目할 만한 일이다. Raffles가 Rigg로 하여금 採備를 시키고 떠날 때의 灰色의 날씨는 가벼운 가을비로 變하였고 나무울타리와 길가의 풀들은 生氣를 띠었다. 또 Mr. Bulstrode가 상쾌한 어느날 저녁, 더우기 평온한 想念에 젖어 있을 때 그의 運命을 急變시켜놓는 Raffles를 문득 만나게 된다. 다음날 아침 Raffles는 Mr. Bulstrode를 괴롭히고자 Stone Court를 訪問한다. 그 다음 章의 첫머리에도 Mr. Bulstrode에게 苦惱를 안겨주는 그 우울한 아침은 “By that delightful morning when the hayricks at Stone Court were scenting the air quite impartially, as if Mr. Raffles had been a guest worthy of finest incense …” (p.579)라고 反對的 現象으로 描寫되어 있다. 이것은 自然의 모습과 人間生活의 모습이라는 複雜性을 暗示하여 주는 것이다.

위의 경우와는 反對로 自然이 作中人物과 一體感을 이루는 경우가 있다. 예컨대 10月初 어느날 아침 Fred는 Rosamond를 Stone Court에 데리고 간다. 도중에 펼쳐지는 中部地帶의 아름다운 風景을 作家는 描寫하고 있지만, 그것은 “These are the things that make the gamut of joy in landscape to midland-bred souls—the things they toddled among, or perhaps learned by heart standing between their father’s knees while he drove leisurely.” (p.131)라는 理由인 것이다. 그외에도 Garth家の 사람들과 Mr. Fare-brother 같은 따뜻한 人間性을 지니는 人物과 關聯지어 나타난 自然의 모습은 여러 場面에서

그 人物과 一體感을 보여주고 있다.

G. Eliot의 自然에 대한 透徹한 洞察은, 初期의 作品에도 나타나 있어서 特有한 牧歌的 魅力을 作品에 부여하고 있지만 風景描寫가 作家自身の 어린 시절에 대한 애착으로 說明的 語句를 수반한다던지 해서 극단으로 흘러 作品全體의 調和를 잃어버리게 하는 경향이 있었다. 이에 비해, 이 作品에서는 風物의 意味를 說明하는 一般的 註釋을 加하기도 하고 애착에 치우쳐서 열중하는 일도 없다. 오히려 自然이 人間生活과의 神秘的인 複雜한 關係속에서 把握되어 小說과 完全히 融合되어 있다고 말해도 좋을 것이다. 이처럼 作中人物의 外的特性의 提示와 그것에 대한 多樣한 評價나 人物 주변의 自然的 環境의 提示와 이에 대한 多樣한 反應은 G. Eliot 特有의 描寫手法이다.

지금까지 살펴 본 데서도 把握할 수 있지만 이 스토리의 場을 設定하는 일에 重要的 역할을 해내고 있는 것으로 多種多樣한 副次的 人物의 存在도 看過될 수 없다. 스토리의 場의 生活感情을 浮刻시키기 위해서 Eliot는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場面을 效果的으로 使用한다. Dorothea의 結婚式을 앞에 둔 만찬회, 새로운 病院부속의 有給牧師를 선출하기 위한 理事들과 醫師들의 協議會, 늙은 Featherstone의 病床과 그 장례식, 넓은 장터, 또는 Brooke家, Vincy家, Farebrother家, Garth家 등 多樣한 家庭生活의 描寫를 통해 Middlemarch라는 都市를 形成하는 모든 階層, 職業人들이 登場하여 그 都市의 性格을 讀者들에게 印象깊게 描寫시켜 준다. 그러나 副次的 人物의 重要的 生活部分이 表現되는 일은 거의 없다. 그것은 그들에게 부과된 역할이 主要人物의 生活背景을 綜合적으로 形成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들은 世論의 方向을 暗示해 주고, 主要人物에 갖가지 批判을 加하여 그 生活樣式을 規制하는 confident로서의 역할을 하는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이 副次的 人物들이 단순히 主要人物과의 關係에 있어서만 價値를 갖는 것은 아니다. 만일 Mr. Brooke, Celia, Sir James Chettam, Mrs. Cadwallader나 Mr. Farebrother의 一家의 여러 人物들을 除外시킨다면, 이 作品의 統一性이 결여될 뿐만 아니라 特有한 魅力의 大部分이 상실되어 버린다. 그들은 제각기 獨自의 世界를 살아가는 個性的 存在로서 바로 Middlemarch라는 都市의 特性을 立證해 주고 있는 人物들이다. 이 都市는 過去로부터 繼承되어 온 傳統을 共通적으로 흡수하고, 그것을 기반으로 한 生活感情을 共有하고 있다. 요컨대 偏見에 가득 찬 利己의이며 俗物的인 世界이다. 다음의 註釋은 이 都市의 俗物性을 잘 說明해 주고 있다:

Everybody liked better to conjecture how the thing was, than simply to know it; for conjecture soon became more confident than knowledge, and had a more liberal allowance for the incompatible (p.775).

Mr. Vincy는 많은 돈을 所有한 者의 利己的인 偏見을 보이고, Mrs. Cadwallader도 단순하면서도 保守的이며 皮相的인 생각을 가지고 있다. 반면에 이들과는 다소 對照的인 感覺을 지니고 있는 人物들이, Garth家의 사람들 그리고 Mr. Farebrother이다. 이와 같이 단순하고도 利己的인 사람들에게 에워싸인 한 人間의 高潔한 精神이 그로부터 나쁜 영향을 받게 된다는 것은 명백한 事實이다. 自尊心이 강할수록 도리어 주변의 영향을 最大限으로 받기 쉬워서, Lydgate도 그 예외가 아니다. gossip이나 世上의 소리는 Lydgate의 人生行路를 妨害하여 變更시키는 데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 처음으로 Middlemarch에 나타났을 때 Lydgate는 그 지역사람들에게 平凡한 시골醫師가 아니라는 印象을 주며 무엇인가 훌륭한 일을 할 것 같다는 期待感을 갖게 한다. (p.171) 그러나 良家집안의 大部分은 새로 온 醫師를 맞이할 必要를 느끼지 않고 있었다. 이윽고 그는 藥을 調劑하지 않는다는 소문이 퍼졌다. 그 理由에 대해 그가 Mr. Mawmsey에게 경솔하게도 通俗的인 說明을 한다. 이 內容을 전해 들은 Mrs. Mawmsey는 Lydgate가 藥은 無用이라고 말하고 있다고 誤解하게 된다. 그 誤解는 다음날 Mr. Gambit에게 전해지고, 그로부터는 Mr. Toller나 Mr. Wrench와 같은 동료 醫師들에게도 전해져서 Lydgate는 통렬한 非難을 받고 惡感情을 받게 된다. 한편 그 동안에 여러 患者가 Lydgate의 診療를 받아 回復되고, 그중에는 危險한 病狀인 者도 있었다. 그리고 Lydgate가 Nancy Nash와 Fred Vincy의 病에 대하여 다른 醫師들의 誤診을 무심코 指摘해서 심각한 事態가 發生하게 된다. 그것은 一面 藥에 대한 Lydgate의 見解에 관한 一般의 偏見을 없애는 데는 도움을 줬지만, 다른 面에서는 동료 醫師들의 反感을 增大시키게 된다.

Lydgate는 都市의 화려한 世俗的 成功과의 접촉을 피해, 스스로의 조용한 人生方針을 進行시키려고 London을 떠나서 Middlemarch에 온 理想家的 氣質의 青年이었다. 그러나 醫師라는 職業上의 理由로 다수의 사람들과 접촉이 많은 그는 上述한 것처럼 스스로의 意圖에서 벗어나고 있다. 주위의 영향을 받아 마침내 Middlemarch를 위한 소박한 善行을, 그리고 世上을 위해 偉大한 일을 하겠다는 그의 소망은 完全히 挫折되고 만다. Lydgate가 휘말려드는 最初의 紛爭은 病院부속의 새로운 牧師로서 Mr. Tyke와 Mr. Farebrother 中에 어느 쪽을 선택하는가 하는 問題이다. Mr. Tyke는 病院에 財政的 援助를 주고 있는 Mr. Bulstrode가 支持하는 사람이고, Mr. Farebrother와는 個人的으로 친분이 두터운 사이로 그의 才能에 敬意를 표명하고 있었다. 결국 Lydgate는 Mr. Tyke에게 絶對투표를 던지는 궁지에 몰리지만, Mr. Farebrother와의 關係는 後에 Lydgate를 轉落의 제일단계로 이끄는 것이 된다. Mr. Bulstrode에 대한 gossip과 함께 Lydgate가 그에게 매수당해서 Raffls의 죽음을 재촉케 했다는 疑感이 都市에 퍼져 나간다:

The business was felt to be so public and important that it required dinners to feed it, and many invitations were just then issued and accepted

on the strength of this scandal concerning Bulstrode and Lydgate; wives, widows and single ladies took their work and went out to tea oftener than usual: and all public conviviality, from the Green Dragon to Dollop's, gathered a zest which could not be won from the question whether the Lords would throw out the Reform Bill (p.774).

이와 같이 多種多樣的 副次的 人物은 主要人物의 주변에서 스토리의 背景을 形成하고, 主要人物의 生活에 직접간접으로 영향을 미치며 스토리를 發展시켜 간다. 그러므로 主要人物의 人間像은 다른 人物과의 關係에서 나타나는 行動이나 言語 그리고 人物相互間的의 判斷을 통해 證證적으로 具體化된다:

"George Eliot leads us through different phases of feeling towards her principal characters through the sensibilities of another principal character rather than through her own overt comment"¹⁵⁾

B. 時間的 認識

自然的, 社會的 背景을 確立시킴으로써 作中人物을 特定的 場에 設定시킨 作家는, 더 나아가 다섯가지 plot를 병행시킴으로써 人間存在의 複雜한 錯綜을 追求하고 있다. 즉 (1) Dorothea - Casaubon - Ladislaw의 plot와 (2) Lydgate - Rosamond의 plot (3) Garth 家의 사람들 - Fred의 plot (4) Bulstrode夫婦의 plot (5) Featherstone의 plot가 重疊되고 있다. 그러나 이 plot들은 단순한 平行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다음의 表가 보여주는 것처럼 다수의 人物이 血緣關係나 結婚, 交友, 職業上의 關係에 의해서 어느 한 plot도 다른 plot와의 關聯을 無視해서는 成立할 수 없게 되어 있다. 즉, G. Eliot는 空間에 있어서 複雜한 相互關係뿐만 아니라 나아가서 時間的 諸要素에 의해서도 人間存在가 規制되고 發展된다는 점에 注意를 두고 있다. 그래서 作家는 作中人物의 움직임을 特定的 時間안에 定着시킴으로써, 그 特定的 時間的 要素에 의하여 영향받는 內의 生活의 特殊한 움직임을 探索하고 있다.

15) David Daiches, *Middlemarch* — *Studies in Literature* (London: Edward Arnold Ltd., 1963), p.30. 作家가 作中人物을 描寫함에 있어서 이 作品에서만은 作家自身の 說明的 註釋에 의거하고 있지 않다고 David Daiches는 指摘하고 있다. 이것은 主人公의 人物描寫에 있어서, 다른 主要人物과 副次的 人物, 또는 그 밖의 要素가 수행하는 역할이, 作家의 說明을 대신하고 있음을 뜻한다.

1829年 11月 30日에 Brooke家에서 시작된 스토리는 1832年 3月頃에 끝나는 것이지만 場面の 日數가 明示되기도 하고, 선거법 개정전의 선거운동, 鐵道에 대한 農民들의 反對 등의 歷史的 事件이 묘사되기도 한다. 따라서 스토리 展開過程에서 事件의 日時가 確實하게 포착될 수 있다. Dorothea와 Casaubon의 結婚은 1829年 11月 초순이고, 늙은 Featherstone의 죽음은 1830年 3月 중순이며, Casaubon은 1831年 3月的 어느 일요일 저녁에 急死한다. 이와같은 事件의 日時는 Felix Holt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그것이 人間生活에 큰 變動을 意味하는 時期이고, 人間存在의 困難함이 더욱 增大된 時期였음을 暗示하고 있다.¹⁶⁾ 더구나 作家는 時間의 經過가 人間存在에 미치는 微妙한 影響을 重視하였다:

“... character is not cut in marble - it is not something solid and unalterable. It is something living and changing, and may become diseased as our bodies do” (pp.790-91).

이것은 作家가 牧師 Farebrother를 통해 한 말이지만 G. Eliot의 변치않는 信念¹⁷⁾을 表現한 말로서 人間存在는 固定된 것이 아니고 變化하는 것으로, 時間의 흐름속에 무수한 原因의 相互作用에 影響받고 調율되어 간다는 것이었다. 이러한 人間觀에 입각한 作家는 人間이나 事物에서 일어나고 있는 變化를 예민하게 感得시키는 힘과 人物이 展開하는 過程을 描寫하는 特出한 能力의 所有者였다. 따라서 人物의 內的意識이 時間의 經過에 따른 微妙한 變化過程을 描寫하는 데 뛰어난 역량을 발휘하고 있다. 그러므로 作家는 “the obscurity of those minute processes which prepare human misery and joy” (p.194)를 時間속에서 追求한다. 性格의 漸次的인 變化는 대체적으로 人物의 相互關係에서 나타난다. 作家는 時間의 經過에 따라서 高調되었다가 또는 退化되기도 하는 性格의 變化를 描寫하기 위하여 思想이나 感情의 순간적 現象도 빠뜨리지 않는다. 그것들은 日常生活의 단편적인 要素들이지만 이들로 結晶된 行動이나 言語는 人間의 性格形成에 重要한 要因이 되고 있는 것이다. 이 점에 초점을 맞추어 Dorothea 및 Lydgate의 變化를 더듬어 보자.

最初로 登場할 때의 Dorothea는 世上을 모르는 순진한 少女로서, 世上을 위한 善行의 첫째는 가난한 農民들에게 좋은 住居地를 提供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社會的 身分이 낮고

16) *Middlemarch, Introduction* pp. 17-18. W. J. Harvey는 Asa Briggs의 말을 引用하여 *Middlemarch*의 여러 局面이 Victoria朝 後期の 諸機相에 비슷하며, 作中人物의 問題는 作家自身の 問題와 비슷하다는 점에 注意를喚起시키고 있다.

17) George Eliot의 이 實證主義的 人生觀은 Auguste Comte, John Stuart Mill, Herbert Spencer, C. H. Lewes, Ludwig Feuerbach 등의 實證主義的 哲學者의 說과 비슷함을 Bernard J. Paris는 詳述하고 있다. cf. B. J. Paris, *Experiment in Life, George Eliot's Quest For Values* (Detroit: Wayne Univ. Press, 1965), pp.25-51.

文化的 혜택을 입지 못한 階層이 바로 農民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무엇인가 價値있는 일에 人生을 全力하고 싶다는 막연한 熱望이나, 自己와 現實에 대한 無知로 인해 유발된 제멋대로의 幻想은 Casaubon과의 結婚生活을 통해서 차츰 무너져간다. 그녀의 結婚生活에 대한 不幸은 新婚旅行 前부터 예정되어 있었다. 예컨대 新婚旅行에 Celia의 同行을 바라는 Casaubon의 생각이 그녀에게 꺼림직한 생각을 하게 한다. Casaubon으로서는 로마에서 研究에 종사하는 동안, 갓 結婚한 아내에게 지루하고 따분한 생각을 하지 않게 하려고 한 것이지만, 남편의 研究를 도우려는 熱望에만 마음이 쏠린 그녀는 남편의 配慮로 인해서 오히려 마음의 상처를 받게 된 것이다. 이것은 그들의 相反되는 所望을 結婚에 위탁하고, 이룩하려는 데서 緣由된 것이다. Dorothea는 Casaubon과의 結婚生活을 想像하며 다음과 같이 Eden의 꿈을 그린다:

It would be like marrying Pascal. I should learn to see the truth by the same light as great men have seen it by. And then I should know what to do, when I got older: I should see how it was possible to lead a grand life here-now- in England(p.51).

그러나 Dorothea의 이러한 낭만과 꿈은 幻想에 불과하게 된다. 그것은 그녀의 未熟한 現實認識에서 基因된 것이며, 同時에 그녀의 自己中心性에서 연유된 一種의 幻想일 뿐이었다. 다시 말해 그녀는 結婚의 相對를 自律的 個性의 存在로 보지 않고, 自己目的을 達成하기 위한 一種의 媒體로 생각한 것이다. 이러한 自我主義의 結婚觀은 Casaubon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다음과 같은 말에서 그의 利己的인 結婚觀을 찾아 볼 수 있다:

But he had deliberately incurred the hindrance, having made up his mind that it was now time for him to adorn his life with the graces of female companionship, to irradiate the gloom which fatigue was apt to hang over the intervals of studious labour with the play of female fancy, and to secure in this, his culminating age, the solace of female tendance for his declining years(p.87).

이와같이 서로 自己中心的인 所望과 낭만적 幻想으로出發된 結婚生活이 순조로울리 없음은 당연하다. Rome에서 Dorothea는 무엇인지 理由모를 슬픔에 휩쓸린다. 結婚前의 期待와 希望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經驗을 하는 가운데, 세상물정 모르던 少女는 갖가지 印象과 자극을 받아서 남편과 世上에 대한 視覺이 서서히 變化되어 가고 있음을 認識한다. 옛도시 로마의 印象的인 事物들에 대한 남편의 無感覺에 그녀는 一種의 精神的 전율을 느낀다. 남편의 研究에 도움이 되리라던 所望도 남편의 화를 자아내게 할 뿐이라는 것을 알고, 비로소

그녀는 “To Dorothea’s inexperienced sensitiveness, it seemed like a catastrophe, changing all prospects.” (p.234)라고 남편에 대해 분노를 느낀다. 여기에서 作家가 Dorothea에 대해서 “inexperienced sensitiveness”라는 用語를 쓰고 있는 점에 注意하자. 이것은 無感覺한 남편에 대한 그녀의 분노는, Casaubon이 責任을 지어야 할 것도 있지만, 그以上으로 그녀의 自己위주의 獨善的 無感覺을 作家는 讀者에게 理解시키려고 하는 것이다. 그러나 아직 그녀는 헌신적인 아내로서 Ladislaw가 남편의 研究를 無價値하다고 말하는 것을 듣고 화를 낸다. 그리고 그날밤 남편에게 아침의 경솔한 말을 사과하곤 한다. 이처럼 한가닥 希望과 期待를 걸고 그녀는 女性으로서의 義務를 다하려고 努力한다.

로마에서 돌아온 그녀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Lowick 저택에서의 침울한 生活이었다. 그리고 Ladislaw의 再出現은 夫婦間의 人生觀의 相違를 한층더 두드러지게 한다. Ladislaw의 訪問요청을 Casaubon이 거절하자 Dorothea의 마음은 날카로운 아픔을 느낀다. 그 後 Casaubon의 不在中에 Dorothea를 訪問한 Ladislaw가, Casaubon이 自身의 일에 自信감이 없으며 研究內容도 外部에 알리고 싶어하지 않는다고 그녀에게 告하지만, 그녀의 反應은 다음과 같다:

But Dorothea was strangely quiet — not immediately indignant as she had been on a like occasion in Rome. And the cause lay deep. She was no longer struggling against the perception of facts, but adjusting herself to their clearest perception (p.400).

여기에는 Dorothea의 變化되고 成長된 모습이 뚜렷이 기록되고 있다. Ladislaw의 批判에 대하여 남편을 辯護하는 것은, 남편에 대한 感情이 以前의 讚美에서 全적으로 벗어나 연민의 정으로 움직이고 있음을 나타낸다. Casaubon을 偶像視하는 대신에 한 人間으로 보는 것은 바로 精神的 成長의 表出이다.

그러나 아직도 그녀는 未熟한 女性에 지나지 않았다. 남편의 不在中에 Ladislaw를 따뜻이 맞아들이기도 하고 그에게 同情을 보인다. 이것은 Dorothea가 지닌 善意의 言動이었지만, 남편의 內部感情을 눈치채지 못하는 重大한 결함을 보여주고 있었다. Casaubon의 自尊心은 이미 뒤흔들어지기 시작하였고, Ladislaw에 대한 남편의 惡感情을 理解하지 못한 그녀의 善意는, 도리어 남편을 질투하게 만들어 苦痛을 주는 結果를 초래하고 만다. 어느날 그녀가 상냥하게 남편에게 다가서서 살며시 팔짱을 끼었을 때 남편의 反應은 냉담하기만 했다. 그래서 그녀는 “She was in the reaction of a rebellious anger stronger than any she had felt since her marriage.” (p.463)라고 느낄 정도로 지금까지 품고 있던 憐憫의 情까지 내던져 버린다. 그리고 곧 二層의 자기방으로 올라 갔다가, 다시 생각을 바꾸어 남편을 대

하려고 증계를 내려선다. 그때 아내의 모습을 發見한 Casaubon은 약간 놀라며 부드럽게 말을 건네다. (p.465) 이것은 사소한 言動을 통하여 夫婦間의 感情上의 起伏과 振動을 보여 주고 있는 것이다.

Casaubon과의 結婚生活의 혼란적 苦惱, 분노와 交錯하는 번민과 恨심을 통해 비로소 Dorothea는 人間의 苦痛에 대한 깊은 共感의 門에 들어서려고 한다. 精神的 空虛와 不滿感에서 벗어나지는 못했지만 그녀의 연민은 自身の 未來와 남편의 過去를 同時에 共有하려고 努力한다. 다시 말해 그녀는 지금까지의 運命과 現實의 苦痛을 기꺼이 감수하고자 하는 것이다. 그래서 남편의 死後에도 그의 研究를 완성해주길 바라는 남편의 요청에 따를 決心임을 전하려고 庭園으로 가지만 거기에서 남편의 急死를 發見한다. 그 後에 그녀는 Ladislaw와 再婚을 할 경우에는 遺産을 還收한다는 趣旨의 遺言을 確認하고 충격을 받는다. 남편이 自己와는 전혀 다른 생각이었음을 알고 그녀는 夫婦間에 넘기 어려운 壁이 있었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 作家는 그녀의 近視眼的인 世界觀, 安易한 生活意識 가운데서 自然스럽게 發生된 自己中心의 人間觀을 擴大시키기 위해, 차츰차츰 거기에 충돌하는 事實들을 提起하여 간다. 그것은 Dorothea에 대한 作家의 愛情이다. Dorothea는 이처럼 性格的 결함과 社會的 未熟으로 인해 人生苦痛을 經驗하지만 차츰 現實認識의 눈을 뜨며 삶에 대한 自覺을 하게 된다. 그러나 여기서도 아직 Dorothea는 充分한 成熟을 이루고 있지 않다. Casaubon이 왜 그와 같은 內容의 追記를 遺言에 보태지 않으면 안되었는가에 대해서 깨닫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것은 Casaubon의 利己性 못지않게 Dorothea에게도 未熟함이 남아 있었다는 것을 作家는 示唆하는 것이다.

이와 같이 Dorothea의 變化를 結婚生活을 통해서 概觀해보면, 그녀는 散文的인 世界의 平凡한 情況속에서 꿈꾸는 듯한 生活을 보낸 後, 막연한 갈망의 열매를 結實하지 못한 空虛感을 認識하는 영혼의 슬픈 기록이다. 이렇게 보았을 때 Dorothea의 生涯는 敗北의 歷史로 간주된다. Dorothea가 처음 Casaubon의 마을의 풍요로움을 보았을 때, 自身の 奉仕가 不必要하다고 생각하며 失望을 느낀다. 그러나 그러한 편협에서 서서히 成長되어 偉大한 것을 사랑하고 그것을 達成하려고 努力을 기울여도 失敗한다는 슬픔을 認知하게 된다. 또한 사람들에게서 疑心을 받고 있는 Lydgate의 무고함을 告發하며 主張하기도 하며, Lydgate와 Rosamond의 困難한 結婚生活에 共感的 愛情을 表明하기에 이른다. 이렇게 본다면 이는 敗北의 歷史임과 同時에, 있는 그대로의 現實生活의 예기치 못할 強한 壓力을 깨닫고 삶에 대한 깊은 共感으로의 接近過程이라는 것도 否認할 수는 없다.

Lydgate에 대한 變化의 追求도 매우 치밀하다. 作家는 우선 그가 Rosamond와의 結婚에 誘引되는 過程을 더듬어 간다. 病理學研究과 病院建設에 마음을 쏟고 있는 그는 수년간은 結婚하지 않겠다고 決心하고 있지만 Rosamond의 미모에 魅惑된다. 다음의 引用은 그의 感傷의이고 無意志的인 모습을 잘 드러내주고 있다:

Lydgate rose to go, and Rosamond, made nervous by her struggle between mortification and the wish not to betray it, dropped her chain as if startled, and rose too, mechanically. Lydgate instantaneously stooped to pick up the chain. When he rose he was very near to a lovely little face set on a fair long neck which he had been used to see turning about under the most perfect management of self-contented grace. But as he raised his eyes now he saw a certain helpless quivering which touched him quite newly, and made him look at Rosamond with a questioning flash. At this moment she was as natural as she had ever been when she was five years old: she felt that her tears had risen, and it was no use to try to do anything else than let them stay like water on a blue flower or let them fall over her cheeks, even as they would.

That moment of naturalness was the crystallizing feather-touch: it shook flirtation into love (p.335).

이처럼 하잘 것 없는 데 깊은 意味를 갖게되는 데서 그들의 사랑은 出發한다. 한 순간의 꾸밈없는 Rosamond의 동작에 마음이 끌린 Lydgate는 30分後 Vincy家를 나설 때는 그녀의 約婚者가 되고 있었다. 단지 몇 방울의 自然의 눈물이 “才能을 타고난 29세의 강한 男子”의 人生方向을 바꿀 정도의 큰 힘을 發揮한 것이다.¹⁸⁾ 이 場面은 人間의 不幸이나 기쁨의 豫備가 되는 微細하고 애매한 過程을 說明하는 좋은 例라 하겠다.

Lydgate와 Rosamond 사이에 生活感情上의 不一致가 있음은 Book V, Ch. 43의 끝에서 처음으로 提示된다. Rosamond는 남편이 일과 研究에 몰두하고 있는 점에 대해서 不平을 토로한다. 醫師로서의 職業을 重視하는 남편과는 달리, 그다지 좋은 職業이라고 생각하지 않은 그녀는 Ch. 45의 끝에서 “‘Very well, Doctor Grave-face’ said Rosy, dimpling, ‘I will declare in future that I dote on skeletons,’”(p.498)라고 남편을 빈정댄다. 이 章의 마지막 2行은 “‘No, no, not so bad as that’ said Lydgate, giving up remonstrance and petting her resignedly”라고 되어 있다. 그리고 다음 章의 끝에서는 Rosamond로부터 家具代金の 支拂을 要求받아서 당혹한 Lydgate가 해산 전의 아내의 마음을 어지럽혀서는 안된다고 걱정하며 그 問題를 딴 데로 돌리려고 하는 苦心이 描寫되어 있다. 그後 Book VI Ch.58까지 Lydgate-Rosamond의 plot에는 그다지 關心이 集中되지 않는다. Chapter 58이 되면 Rosamond의 제멋대로의 행위가 한층 눈에 띄게 되어 Lydgate의 마음의 苦痛이 계속된다. 醫師인 남편의 注意를 無視하고 임신중인데도 乘馬를 계속하던 Rosamond는 기어 이 流産의 不幸을 겪는다. Lydgate는 처음에 꿈꾸고 있던 生活과는 거리가 멀어져가고 있다는 것을 차츰 意識하게 된다:

18) Rosamond는 대체적으로 自己欺瞞的 egoism의 典型으로서, 교묘한 策략을 쓰는 女性으로 描寫되어 있지만 小説속에서 두번은 自然스러운 모습을 보여준다. 이 場面이 그 하나이고, 또 한번은 Ch.81에 나타난다.

Rosamond was arranging her hair before dinner, and the reflection of her head in the glass showed no change in its loveliness except a little turning aside of the long neck. Lydgate had been moving about with his hands in his pockets, and now paused near her, as if he awaited some assurance. 'I wish you would fasten up my plaits, dear', said Rosamond, letting her arms fall with a little sigh, so as to make a husband ashamed of standing there like a brute. Lydgate had often fastened the plaits before, being among the deftest of men with his large finely-formed fingers. He swept up the soft festoons of plaits and fastened in the tall comb(to such uses do men come!): and what could he do then but kiss the exquisite nape which was shown in all its delicate curves? But when we do what we have done before, it is often with a difference. Lydgate was still angry, and had not forgotten his point (pp.629-30).

여기에는 “아름답고 상냥한 아내”의 “무서운 頑固함”을 意識하여 스스로의 無力感에 놀라면서도, 그 미모의 奴隸가 되려고 하는 青年의 苦惱가 가련하게 描寫되어 있다. Lydgate가 財政上の 問題를 토로하고 協力을 구하여도 아내는 반말하고 나설 뿐이다. 그녀는 남편의 希望과 期待에 反하여 제멋대로 行動함으로써, 남편을 더 깊은 苦痛속에 빠뜨린다. 남편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父親에게 援助를 求하지만 失敗한다. 또한 남편의 친척이 되는 貴族¹⁹⁾에게도 부탁을 했다가 拒絕의 回答을 받는다. 그 以前에 집을 팔아서 經濟的인 回生을 꾀하려던 Lydgate의 希望을 그녀는 비밀로 妨害한 적도 있었다. 아내의 이러한 行動에 Lydgate는 폭발적인 화를 억누를 수 없었지만 忍耐로 始終하며 아내에게 무엇이든지 터놓고 얘기하여 줄 것을 다음과 같이 부탁한다:

She spoke and wept with that gentleness which makes such words and tears omnipotent over a loving-hearted man. Lydgate drew his chair near to hers and pressed her delicate head against his cheek with his powerful tender hand. He only caressed her: he did not say anything; for what was there to

19) Victoria 朝의 初期에는 商人階級으로 부터 中産階級으로 올라선 사람들이 意識적으로 階級을 낮추려는 傾向이 있었다. Mrs. Vincy에게서도 階級을 낮추려는 傾向이 나타나며, Mary와 같이 가난한 사람들을 輕視하는 態度가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시골 工場主의 딸이 아니었으면 보다 더 幸福했으리라고 생각하고, 어머니가 旅館집 딸이었음을 想起하고 싶지 않은 Rosamond가 貴族階級에 끌리는 것은 바로 이 때문이다. cf. "Now that a man may make money, and rise in the world, and associate himself, unreprouched, with people once far above him... it becomes a veritable shame to him to remain in the state he was born in and everybody thinks it is his duty to try to be a 'gentleman.'" (John Ruskin, "Pre-Raphaelitism", In: *The Works*, Library Edition, ed. by E. T. Cook & A. Wedderburn, Vol. 12, p.342).

say? He could not promise to shield her from the dreaded wretchedness, for he could see no sure means of doing so. When he left her to go out again, he told himself that it was ten times harder for her than for him: he had a life away from home, and constant appeals to his activity on behalf of others. He wished to excuse everything in her if he could but it was inevitable that in that excusing mood he should think of her as if she were an animal of another and feebler species. Nevertheless she had mastered him (pp.718-19).

여기에는 남편을 전혀 理解하지 못하고 物質과 社會的 地位만을 追求하는 한 女性의 利己性과 俗物性²⁰⁾으로 因해 고민하는 한 男性의 애절한 모습이 잘 나타나 있다. 그러나 그는 여전히 아내가 지니고 있는 육체의 魅力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게다가 연약한 아내를 보호해야 할 남편으로서의 義務感에 誠實하고자 했기 때문에, 결국 높이 활개 치려던 날개를 땅에 질질 끌고 있는 男性의 苦惱가 참혹하게 分析되고 있다.

다음 章에 가서는 Dorothea의 깊은 共感에 의하여, Rosamond는 새로운 “觀”을 깨닫게 되지만, 本質적으로는 여전히 自己 中心性과 利己的 俗物性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을 Lydgate는 다음과 같이 痛感한다:

‘How heavy your eyes are, Tertius - and do push your hair back!’ He lifted up his large white hand to obey her, and felt thankful for this little mark of interest in him. Poor Rosamond’s vagrant fancy had come terribly scourged - meek enough to nestle under the old despised shelter. And the shelter was still there: Lydgate had accepted his narrowed lot with sad resignation. He had chosen this fragile creature, and had taken the burden of her life upon his arms. He must walk as he could, carrying that burden pitifully (p.858).

無感覺하고 自己中心的인 아내 때문에 높은 理想이 산산조각나버린 남편의 무력함과 運命에 대한 諦念이 날카롭게 描寫되어 있다. Lydgate가 역겨운 運命에 대해 아무런 抵抗도 없이 人生을 포기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거기엔 悲劇感은 생기지도 않을 것이다. 그러나 서서히 轉落하는 自身을 意識하며 거기에 抵抗을 시도한다. 自己 스스로 선택한 運命의 길이기에 한걸음한걸음 내려서지 않을 수 없는 轉落의 過程, 즉 높은 理想實現을 위해서 London을 버리고 온 그가 마침내 營利을 求하는 階級로밖에 變貌하지 않을 수 없었던 過程이 描寫되므로 人間存在의 悲劇性과 그에 대한 共感이 매우 鮮하게 讀者의 가슴에 와 닿는다.

20) 作家는, 남편의 勞苦를 理解하지 않고, 家庭內에서도 남편에게 心勞를 주는 Rosamond와 같은 女性을 가장 싫어 하였다. cf. D. Lodge, ed., *Scenes of Clerical Life* (Middlesex: Penguin Books, 1973), p.97.

Ⅲ. 삶과 地上의 共存的 價値

以上 살펴본대로 G. Eliot는 *Middlemarch*에 있어서 人物의 外的特性과 함께 깊은 內面 心理의 혼미스러움을 空間과 時間의 兩面에서 追求하였지만, 그것은 人間存在의 實體를 個人의 性格과 그 周圍의 갖가지 動的인 相互作用을 통해 具體化 시키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人間은 무엇보다도 自己自身만으로 充足된 獨自의 個性과 價値를 갖는 倫理的 存在라는 確信을 지녔던 G. Eliot는 環境에 의하여 左右되는 社會的 存在임과 同時에 個人的·自律的 存在로서의 人間이 지니는 個性에 대한 究極的 尊嚴성을 強調하였다. 따라서 *Middlemarch*에는 오로지 環境 한가지 때문에 삶의 規制를 받는 人物은 하나도 보이지 않는다.

예컨대 Lydgate의 挫折은 분명히 周圍의 情況, 다른 人物, 특히 Rosamond와의 關係에 의하여 表面化되는 것은 이미 살펴 본 바이지만, 그러나 環境이 아무리 예고없이 冷酷하게 그의 理想追求를 妨害했다고 하더라도 그의 內部에서 그것을 용납하는 要素가 内存하지 않았다면 그의 轉落은 없었을런지도 모른다. 아래의 引用은 Lydgate의 俗物性的 一面을 보여준다 :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Lydgate's spots of commonness lay in the complexion of his prejudices, which, in spite of noble intentions and sympathy, were half of them such as are found in ordinary men of the world: that distinction of mind which belonged to his intellectual ardour, did not penetrate his feeling and judgment about furniture, or women, or the desirability of its being known (without his telling) that he was better born than other country surgeons. (p.179).

곧 Lydgate는 卓越한 知性的 所有者이면서도 自身の 俗物性에 대한 自覺은 없었던 것이다. 그의 "spots of commonness"는 女性을 대하는 態度에서 먼저 表現된다. Paris에서 研究中일 때 연극배우 Laure에게 반해서 일으킨 愚行이나, Dorothea나 Mary의 精神的인 美를 感知하지 못하고 오히려 Rosamond의 外形美에 매료당하는 일 등에서 잘 나타난다. 또한 牧師인 Mr. Farebrother와의 關係도 그의 精神的 結晶의 一面을 뚜렷이 浮刻시켜 준다. 交際를 거듭함에 따라 이 牧師에 대한 好感이 깊어지지만, 牧師가 도박을 즐기는 점에 대해서는 반발을 느낀다. 그것은 Lydgate에게 貧困의 經驗이 없고 "... and he had no power of imagining the part which the want of money plays in determining the actions of men" (p.209)이기 때문에 더욱더 理解할 수 없었던 것이다.

그러나 牧師의 도박을 싫어하던 그가 아이러니칼하게도 그 後 自身이 처한 經濟的인 困難

때문에, 小額의 돈이라도 얻으려고 도박을 하게 되는 괴로운 처지에 빠진다. 이것은 人間生活의 複雜性에 대한 認識의 부족에서 오는 좁은 도량이, 그의 生活의 展開를 통해서 懲罰을 받고 있음을 意味한다. 이러한 그의 편협은 不快感에 直面하는 것을 꺼리고, 사치를 좋아하는 일이나 주위의 情況이나 동료 醫師들에게 適應하는 것을 용납하지 않는 自負心에서 비롯되는 平衡感覺의 缺如로까지 나타난다. 卓越한 才能의 自覺에서 오는 自負心과 理想追求의 열의는 그 自體로서는 높이 評價할 만 하지만 他人을 돌아다 보지 않는 頑固함을 誘發하고, 어떤 意味에서는 自己中心의 괴벽성을 초래하기도 한다. Dorothea에게 있어서도 역시 그녀의 不幸한 結婚生活은 無經驗한 自尊心과 現實認識의 缺如때문에 Casaubon을 偶像視하는 兒석은 幻想이 바로 失敗의 根本原因이 된 것이다.

이와 같이 보면 G. Eliot는 人間存在의 實體가 自己自身에 대하여 責任이 있는 個人과, 社會的 關聯가운데 놓인 個人과의 結合에 있다고 認識하고 있다. 따라서 小說을 통해 個人의 性格과 그 環境과의 相互作用에 의해서 주로 한 人間의 運命이 條件 지워진다고 示唆한 것은 당연한 것이다. 그러나 人間存在를 支配하는 因果의 法則은 결코 단순명백한 것이 아니다. 人間은 知性이나 倫理로서는 解決할 수 없는 不可思議한 行動을 한다. 이러한 점을 強하게 意識한 G. Eliot는 人間存在의 複雜한 錯綜性에 당혹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녀의 小說에서는 偶發的 事件에 의해서 스토리의 展開가 左右되는 것이 흔히 보인다. 이것은 人間存在의 不可解함에 대한 곤혹과 고민을 脫피하기 위해서 試圖된 手法이라고 간주된다.

소위 後期作品에서만 例를 찾아도, 예컨대 *Romola*에 있어서, Baldassare가 굶주림과 괴로로 거의 쓰러지다시피하면서 求한 하룻밤의 宿所가 공교롭게도 Tito의 내연의 처 Tessa가 숨어사는 집이었다든지, Tito가 暴徒들에게서 도망쳐 나와서 다다른 강둑에는 복수심에 불타면서 死境을 헤매는 Baldassare가 最後의 詛呪를 하고 있는 장면이 있다. 또한 *Felix Holt*에 있어서도 Christian이 떨어뜨린 주머니를 Felix가 줍는다든가, Esther의 Transome 저택의 所有權이 判明되는 순간에 Tom Transome이 急死하는 등의 偶然이 보인다. 이것이 너무나 便宜的인 作爲임을 否定할 수 없지만, 讀者는 이를 통해 作家의 人間把握의 苦闘를 反映하는 것임을 認識할 수 있다.

*Middlemarch*에 있어서도 많은 偶然的 事件이 利用되고 있다. 時間과 空間의 多面的·多角的인 場에 人間存在의 多樣性이 차례차례 펼쳐지기 위해서는 偶發的 事件도 “the broad sameness of the human lots”과 함께 人間存在의 複雜性, 不可思議함, 더 나아가 悲劇性까지도 暗示하는데 成功하고 있다. 偶然的 事件의 意味를 把握함에 있어서 이 作品에 描寫된 人間生活의 多樣性 및 類似性을 살펴 보자.

*Middlemarch*가 다섯 가지 plot를 포함하고 있다는 것은 이미 언급한 바 있지만, 처음에는 Lydgate를 中心으로, Vincy家나 Garth家に 關聯된 이야기로서 着想되었다. 作家의 日

記에 의하면 이 小説의 構想이 처음 作家의 마음에 떠오른 것은 Book I의 發表보다 5年前인 1867年 봄이었다고 한다. 그리고 1869年 1月 1日의 日記에 그 해의 計劃으로서 “A Novel called *Middlemarch*”²¹⁾가 적혀 있다. 잇따라서 같은 해 2月 19日字의 서한에서 새로운 小説의 着想을 出版業者에게 “小説의 대강의 줄거리를 만들었기에 곧 쓰기 시작할 작정입니다. 그러나 처음에서 중간이전에는 느릿느릿한 *Scheldt江*과 같고, 그 以後 終末까지는 화살같은 *Rhone江*과 같습니다. … 이야기의 갖가지 要素가 오랜 세월동안 내마음을 속박하고 있고 完全한 具象化를 要求하고 있습니다”라고 通報하고 있다. 그리고 7月 19日의 日記를 보면 *Middlemarch*의 序文을 쓰고 있다고 적었고, 23日에는 “*Middlemarch*를 위한 人物을 심사숙고 했다”고 기록되고, 8月 2日에는 “*Middlemarch* (*Featherstone*의 部分)을 시작하였다”, 9月 1日에는 “*Middlemarch*는 Chapter 3의 序頭에서 停止되고 있지만 그 作中人物과 情況을 熟考하였다” 한편 8月 5日에는 “*Ronouard*의 ‘醫學史’를 읽었다”, 9月 10日에는 “醫學에 관한 독서를 하는 일 이외에 저번 週에 이루어진 것은 없다” 게다가 9月 21日에는 “主人公의 狀況을 想像하는데 必要해서 地方病院에 대한 情報를 얻으려고”²²⁾ *Mrs. Congreve*에게 의뢰한 일을 적어놓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想像될 수 있는 것은 作家의 주된 關心이 *Lydgate*라는 人物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그때는 *Dorothea*의 plot를 이 小説의 一部로서 생각하지 않았음을 뜻한다. *Dorothea*의 이름이 처음 거론되는 것은 그로부터 일년쯤 뒤인 1870年 12月의 일이다. “12月 2日, 하나의 스토리를 試圖하고 있다. 오래 계속하려는 진지한 意圖에서 시작한 것은 아니다. 내가 小説을 쓰기 시작한 이래 계속 可能한 테마로서 붙잡고 있던 題材이다. 그러나 展開하는데 따라 아마도 새로운 모습을 지낼 것이다”(GEL, V, 124) 게다가 같은 달 31日에는 “11月 초순쯤에 시작한 스토리의 100 페이지—— 인쇄한 페이지로서——를 썼을 따름으로, 현재로서는 이 스토리는 *Miss Brooke*라고 이름을 붙일 작정이다.”(GEL, V, 127)라고 기록되어 있다. 이러한 글에서 *Dorothea*의 plot는 처음 *Middlemarch*와 別個의 스토리로서 着想이 되었지만, 後에 합쳐진 것으로 간주해도 무방할 것이다. G. Eliot가 *Lydgate*의 plot에다 *Dorothea*의 plot를 합친 것은 그렇게 함으로써 한층 複雜한 人間關係를 提示할 수 있음과 同時에 두 個의 plot는 어느 것이나 同一 테마의 變奏曲이기 때문에 作品의 調和를 손상시키지 않으리라 여겼기 때문일 것이다.

*Middlemarch*는 G. Eliot의 作品가운데 가장 긴 것으로 全部 8卷으로 되어 있으며 他作

21) *The George Eliot Letters*, V. 3.

22) J.W. Cross, *George Eliot's Life, Journal*, March 26, 1859, p.16.

品과는 달리 連續物으로써 發表되었다.²³⁾ 作家는 發表方法에 의해서 作品內容이 영향을 받는다는 것에는 反對했지만, 다섯가지 plot 가운데 第3卷에서 끝나는 Featherstone의 plot 以外の 네가지 plot는, 어느 卷(Book)에서도 言及되어 있어서 外形上 統一에의 配慮가 充實히 이루어지고 있다. 各卷의 標題를 보더라도 第一卷은 별도로 치고, 나머지는 모두 둘 이상의 plot이 交錯을 보이고 있다. 예컨대 “Three Love Problems”나 “The Two Temptations”에서는 두말할 필요도 없거니와 “Waiting for Death” 및 “The Dead Hand”라 불리는 第4卷과 第5卷은 각각 Featherstone의 친척과 함께 Dorothea와 Casaubon이나 Mr. Bulstrode 등과 關聯을 맺고 있다.²⁴⁾ 그렇지만 第1卷은 全12章으로 되어, 그 中에 9章은 Dorothea - Casaubon의 plot에 맞추고, 끝의 3章에서는 주로 다른 plot에 關聯되는 人物들이 나타나 있다. 對照적으로 第7卷에서는 第71章에서만 Dorothea의 plot와 關係될 뿐이며, 주로 取扱되는 것은 Bulstrode의 plot이다. 第5卷에서는 第52章에서만 Fred-Mary의 plot가 다루어진다. 게다가 Featherstone plot는 第3卷에서 끝나고 거기에는 Bulstrode의 plot가 갓 시작되고 있다. 이처럼 다섯가지 plot는 모두가 各卷에서 同等하게 取扱되고 있는 것은 아니다.

이와 같이 본다면, *Middlemarch*는 얼핏 보기에 豊富한 多樣性이 無秩序하게 重疊된 것처럼 보이지만 결코 혼란된 社會의 雜多한 그림의 集合은 아니다. 그것은 多樣性과 同時に 密接한 相互關係가운데 있는 秩序있는 世界이다. 다시 말해 다섯가지 plot의 테마는 各各 相異한 것이 아니다. Featherstone의 plot도 다른 plot과 無關한 것처럼 보이지만, 金錢이나 愛情같은 人間生活의 지울 수 없는 面에 깊은 意味를 內包시키고 있는 점에서 다른 plot와 同一한 世界를 提示하고 있다. 또 Dorothea - Casaubon, Lydgate - Rosamond, Bulstrode의 세가지 plot는 모두 敗北의 歷史이다. 이들과 對照를 이루는 것이 Garth家를 中心으로 하는 理想의 世界이다. Dorothea - Ladislav의 關係는 表面的으로는 成功을 暗示하지만, 後述하는 바와 같이 Garth의 世界를 指向하면서도 現實認識의 缺如에서, 그 世界에 도달할 수 없음을 엿볼 수 있다. 또 Lydgate - Rosamond의 plot는 Dorothea - Casaubon의 plot와 類似性을 가지면서도 對照를 이루고 있다. 兩者 모두가 相互의 誤解에서 비롯되는 어리석고 不幸한 結婚이야기이다. 제각기의 結婚生活이 Lydgate와 Dorothea의 理想實現을 妨害한다. Casaubon이 Dorothea의 마음을 모르는 것과 마찬가지로, Dorothea도 남편의 苦惱를 認知하지 못한다. 역시 Lydgate와 Rosamond도 서로가 전혀 모르는 世界에 存在한다.

23) cf *The George Eliot Letters*, V, 145-46. 이것은 G.H.Lewes가 提議한 것으로서, 그는 Victor Hugo가 *Les Misérables*에 쓰던 方法에서 暗示를 받고 8部로 나누어서 發刊할 것을 出版業者에게 提議하였다.

24) cf. *Middlemarch*, p.9. 이 方法은 隔月로 發表되기 때문에, 讀者가 主要人物을 잊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쓰여진 것으로 解釋하는 사람들도 있다. 그러나 作家가 이 方法을 執한 것은 發表方法보다 內容의 統一 自體를 위한 것으로 생각하는 것이 타당하다.

人間生活에는 類似와 相違가 密接하게 累積되는 神秘한 領域이 많다. 여기 두 쌍의 結婚生活도 서로의 類似와 함께 相違를 나타내어 人間存在의 複雜함을 效果的으로 暗示시켜 주고 있다. 이들의 不幸한 結婚生活과는 對照적으로 Garth家를 中心으로 하는 plot이 있다. 여기에서는 Garth夫婦, Fred와 Mary 두쌍의 幸福한 結婚生活이 表現되고, 그래서 人間生活의 複雜性이 한층 強調되는 것이다.

作中人物도 plot와 마찬가지로 對照되고 있다. 人間關係의 複雜性, 人間行爲의 紛糾은, 作中人物 相互間의 對比에 의하여 適切하게 調整된다. 作中人物의 相互啓示라고도 할 수 있는 이 手法은 이미 *Adam Bede*에서 잘 나타나고 있지만, 이 作品에서는 한층 錯綜의 程度가 심하다. 이것은 얼핏 보기에 혼란을 드러내는 것 같지만 事實上 作品의 統一性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 對比된 예를 열거해보면, Dorothea의 진지함과 Celia의 단순함,²⁵⁾ Dorothea의 極端性과 Mary의 中庸, Dorothea의 無私와 Rosamond의 利己性, 남편에 대해 無感覺한 Rosamond와 남편의 일로 苦心하는 Mrs. Bulstrode, 魅力的이나 차디차고 技巧的인 Rosamond와 예쁘지는 않지만 마음이 따뜻하고 正直한 Mary, 術學的이며 勤勉한 Casaubon과 直裁的이며 遊惰的인 젊은이 Ladislav, Mr. Bulstrode의 僞善과 Caleb의 誠實 그리고 Mr. Farebrother와 후한 人心등이다.²⁶⁾

이들 가운데 특히 Dorothea와 Rosamond는 용모, 복장, 남편에 대한 態度 등 모든 점에서 뚜렷한 對照를 이루고 있다. 이와 같이 作中人物은 모두 複雜한 關係속에 類似와 對比를 보여주고 있지만, 다섯가지 plot도 그렇다. 成功과 失敗, 빛과 어둠이 서로 얽혀져서 相互間에 相補하는 關係를 이룬다. 그리고 人間生活의 모든 面이 아무리 하찮게 보이는 것이라도 한 사람뿐만 아니라, 그 사람이 모르는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좋은 영향이나 나쁜 영향을 끼쳐간다. 예컨대 Dorothea가 다른 人物에 미치는 영향은 斷片的이고 散漫하지만, 그녀의 plot는 다소라도 나머지 主要人物들과 關聯이 지워진다. 먼저 Lydgate plot와의 關係를 살펴보자. Dorothea와 Lydgate의 만남은 Dorothea의 精神的 展開의 重要한 轉機를 이루는 것처럼, Lydgate에게도 매우 重大한 意味를 가진다. “사람들 중에서 가장 오만한 남자”(p. 796)인 Lydgate가 새로운 人生觀에 눈을 뜨게 되는 것은 Dorothea의 共感에 의한 것이다. Raffles의 죽음에 대해서 Lydgate의 무고함을 믿는다는 말을 듣고 Lydgate는 지금까지 그렇게 好感을 품지 않았던 Dorothea에게 처음으로 敬意를 表明한다. Rosamond도, 혐오와 두려움을 품고 있던 Dorothea에 의해서, 自負心이 산산조각 분쇄당하게 된다:

25) cf. *Middlemarch*, p.529. 이를테면, Dorothea가 自己言動을 모두 Casaubon이 由解하였음을 알고, 人間觀의 根本的인 修正을 強要당해서, 생각에 잠길 때, Celia는 언니의 心的 激動을 눈치채지 못하고 잤던 아기를 愛撫한다.

26) Barbara Hardy, *The Novels of George Eliot: A Study in Form* (London: The Athlone Press, Univ. of London, 1959), p.105.

It was a newer crisis in Rosamond's experience than even Dorothea could imagine : she was under the first great shock that had shattered her dream-world in which she had been easily confident of herself and critical of others ; and this strange... (p.854).

Featherstone의 plot는 다른 plot와 가장 關係가 먼 것처럼 보이지만 Dorothea와는 대단히 微妙한 關係에 있다. Dorothea는 그 인색한 老人의 장례식을 무심코 보지만, 後에 여러번 回想할 정도로 그 암울한 情景에 強烈한 印象을 받는다. 作家는 그녀가 그 장례식 광경을 본 것을 말한 다음, 人間生活의 微妙한 相互關係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敘述한다:

Scenes which make vital changes in our neighbours' lot are but the background of our own, yet, like a particular aspect of the fields and tress, they become associated for us with the epochs of our own history, and make a part of that unity which lies in the selection of our keenest consciousness (p.360).

다른 사람들에게 있어서의 큰 事件도, 그것에 직접 關係가 적은 사람들에게는 一般的으로 전혀 無關한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날카로운 意識을 作用시키면, 우리들 自身에게 직접 關係된 過去의 여러가지 事件뿐만 아니라 길가의 하갈 것 없는 情景도, 우리들의 意識에 눈에 보이지 않는 영향을 끼쳐서 綜合적으로 意識이 形成된다는 것이다. 이와 같이 남의 일이라고 생각되는 것도 눈에 보이지 않는 『실』에 의하여 連結되고 不知不識중에 우리들 生活속에 파고든다는 人間存在의 複雜微妙한 얽힘을 作家는 力說하고 있다.

이처럼 하나의 人物에서 다른 人物로, 하나의 場面에서 다른 場面으로, 하나의 plot에서 다른 plot으로 複雜한 交錯을 反復하면서, 스토리는 進行되어 간다. 人間存在의 이러한 錯綜은 Mr. Bulstrode에게서도 보인다. 信仰心 두텁고 有能한 銀行家로서 社會의 信望을 받고 있는 Mr. Bulstrode가 過去의 罪에 의하여 고민에 쌓이게 되는 것에 대해 作家는 다음과 같이 註釋을 加한다:

With memory set smarting like a reopened wound, a man's past is not simply a dead history, an outworn preparation of the present : it is not a repented error shaken loose from the life : it is a still quivering part of himself, bringing shudders and bitter flavours and the tinglings of a merited shame (p.663).

Mr. Bulstrode의 過去는 지금도 계속 살아 있어서, 善良하고 信仰心이 두터운 名士로서의 名聲을 한꺼번에 잃고, 이웃사람 및 아내에게 敬멸과 悲嘆을 주지 않을까하는 恐怖心을 낳고

더 나아가서 過去의 記憶을 한층 선명하게 소생시키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그의 苦惱가 수 치스러운 過去의 結果라고 하더라도, 모두 決定論的인 因果關係만으로는 說明될 수 없는 어떤 要素가 內在하고 있다. 하나의 偶然이, 發生하지만 않았드라면, 過去를 뒤우치고 새로운 生活에 精進하는 그에게 있어서 그 過去는 회미한 것이 되었을지도 모른다.

Featherstone의 遺産을 둘러싸고 그 秘密의 아들 Joshua Rigg가 처음으로 이 都市에 登場하고, 뒤따라서, Rigg의 母親과 結婚을 했지만 오랫동안 放浪生活을 계속해왔던 Raffles가 나타나서 波紋을 던진다. Featherstone에게서 相續받은 Rigg로부터 교묘하게 돈과 술을 탈취해서 Raffles는 都市를 떠나려고 한다. 그런데 Rigg로부터 얻은 브랜드의 병마개로 使用된 종이가 Nicholas Bulstrode라고 署名된 편지임을 偶然히 發見한다. 그래서 그는 Middlemarch로 되돌아가서 Mr. Bulstrode를 만난다. 30年 가까이나 信仰이 두터운 사람이라고 여겨지고 安樂한 生活을 즐기고 있던 이 유복한 銀行家の 生涯를 苦悶의 方向으로 轉向시키는 直接的原因이 된 것은 Raffles가 偶然히 發見한 바로 이 편지였다.(pp.11-12)²⁷⁾

傳統的인 世界觀에 의하면 人間社會는 雜多하며 얼핏 보기에 아무런 脈絡이 없는 多様な 要素로 構成된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事實은 하나의 有機體이며, 그것은 또한 무수히 작은 有機體들로 이뤄지고, 그것들은 서로 關聯을 맺으면서 全體로서 하나의 有機體를 構成되는 것이다. 더군다나 多様な 人間存在는 無限한 相互關係를 誘導하고, 또한 무수히 많은 結果를 생기게 한다. 現實의 人間關係의 複雜性이 增大함에 따라, 人間行動은 미리 期待한다던지, 所望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結果를 낳는 일을 흔히 볼 수 있다. 이것은 各各의 原因이 되는 行爲가 그것과 相互作用을 하는 다른 原因에 의해서 妨害받기도 하고 規制를 받는 일이 있기 때문이다. 이것은 때에 따라서 偶然의 一致라고 불리우는 경우도 있다. G. Eliot는, 이와 같이 從來의 人間觀·世界觀에서는 理解될 수 없는 人間存在의 不合理性을, 價値의 變動, 人間觀의 動搖의 時期에 생기는 것으로 “the irony of events”(p.503), “unintended consequences”(p.620)와 같은 말로써 說明하고 있다. 그러나 그것을 小說上에 使用하게 되면 때로는 지나치게 作爲的으로 보이는 경우도 있다. 그렇지만 G. Eliot는 흔히 빠뜨리기 쉬운 微細한 事實을 날카롭게 포착하는 觀察力과, 포착된 여러가지 現象사이의 숨겨진 關聯性을 看破하는 想像力을 發揮하여 이러한 偶然이 지니고 있는 眞實性을 現實의 複雜한 相互關係속에서 把握하려고 한 것이다.

偶發的 事件이나 偶然의 一致는 Casaubon이나 Featherstone의 죽음에서도 찾아 볼 수 있

27) cf. “Introduction” to *Middlemarch*, pp.11-12. W. J. Harvey는 作家가 Bulstrode와의 遭遇속에 이 作品全體의 意味를 劇化하고 있으며, 그것은 偶然이라는 흐름에 支配당하는 現實世界에서, 갈광질광하기도 하고, 挫折感을 느끼면서도, 自身의 生活方向을 圖式化하려는 人間の 試圖로 보고 있다고 解釋한다.

다. 그들의 죽음의 時間은 전적으로 偶發的이다. 만약 Casaubon의 죽음이 조금만 늦추어 졌다면, Dorothea의 人生의 方向은 달라졌을 것이다. 그녀는 그의 死後에도 남편의 所望을 遂行하고자 하는 그의 要求에 따를 決心을 傳하고자, 庭園에 있는 남편을 만나러 나가고 있었기 때문이다.²⁸⁾ 또 Mr. Featherstone도 만일 다음날 아침까지 살아 있었더라면, 第二의 遺囑는 Mary에게 부탁한대로 불태워 버려지고 있었을 것이다. 그렇게 되면 Rigg와 Raffles, Fred, 그외에 Mr. Bulstrode나 Lydgate의 未來도 전혀 다른 方向으로 進行되었을지도 모른다. 이 두 事件의 同一性은 지극히 偶然的인 것으로 作家의 意識的 作爲를 느끼게 한다.

第5卷은 “The Dead Hand”라고 題目이 붙여있지만 Casaubon이나 Featherstone은 “死者의 손”에 의하여 生存者를 붙잡으려고 해서 둘다 失敗한다. Featherstone의 손은 “the rigid clutch of his dead hand” (p.358)라고 불리우고, Casaubon의 손은 “his cold grasp on Dorothea’s life” (p.535)라고 불리우고 있다. 그러나 死者의 손이 차디찬 손을 뺐치고 生存者를 포착하려고해도 Dorothea는 Casaubon이 가장 미워하고 있던 Ladislav와 再婚해서 遺産을 포기한다. Rigg는 Featherstone이 남겨준 집을 Featherstone이 싫어하고 있던 Bulstrode에게 讓渡한다. 그리고 이때문에 Bulstrode는 Raffles와 再會하게 되는 것이다.

이들의 偶發的 事件이나 공교로운 偶然의 一致는 作家가 意識的으로 그렸음에 틀림없다. 그러나 그것은 Rigg나 Raffles의 登場이 스토리 展開上의 便宜의 手段으로서 使用되었다는 意味는 아니다. 그들은 Bulstrode뿐만 아니라 Lydgate나 그의 Ladislav의 生活에도 關係가 있으며, 또한 Caleb와도 關聯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것은 作家가 人間生活의 움직임을 複雜多樣한 相互作用의 헤아릴 수 없는 集積에서 비롯되는 結果라고 認識하는데서 基因한 것이다. Caleb가 Rigg와 Bulstrode로부터 따로따로 하나의 土地의 評價를 의뢰받았을 때 “The ins and outs of things are curious.” (p.446)라고 슬회하는 것처럼, 그들의 行動은 人間生活의 複雜한 錯綜을 暗示한다. 또 Dorothea의 遺産포기와 Rigg의 遺産처분의 공교로운 偶然의 一致도 現實의 多樣性을 暗示한다. 이러한 暗示를 통해 作家는 삶 的 어려움을 讀者에게 認識시켜 주고 있다. 現實의 삶에는 보이지 않는 무수한 『실』들이 종횡으로 얽히고, 아무리 가느다란 『실』에서도 도망칠 수 없는 宿命이 人生의 순간 순간과 結付된다. 人間은 누구나 어떤 缺點을 갖고 있고, 그 缺點은 긴 人生의 旅程에서 어떻게 나타날지 모르는 것이다. 더우기 한번 나타난 것은 반드시 어떤 『실』에 의하여 다시 다음의 存在樣式을 規制하여 간다. 그리고 높은 理想이나 所望도 그들의 얽힘에 의해서 阻害되고挫

28) *The Works of George Eliot*, Vol.12, pp.115-20. *Mr. Gilfil’s Love Story* 에서도 이와같은 偶然이 使用되고 있다. Tina를 배신하여 다른 女子와 結婚하려는 Wybrow와 만나기로 約束한 場所에, 그를 죽일려고 Tina가 短刀를 지니고 가보니, Wybrow는 이미 심장발작으로 죽고 있었다.

折되어 가는 것이 많다. Thomas Hardy도 이러한 現象으로부터 이 世界는 巨大한 非人間的 機構라고 보았다. 人間의 힘을 초월한, 말하자면 運命이라고 부를 수 있는 盲目的 힘, 人間의 思想感情과는 關係없이, 不可解하게 作用하여 個人의 美德을 말살시킨다고 생각하였다. 즉 Hardy는 人間苦惱의 責任을 人間自體에서 찾지 않고, 人間 外部의 盲目的, 非人間的인 힘에 돌림으로서 人間存在의 困難性에 대한 하나의 解決策을 모색하였다.

이것에 反하여 G. Eliot는 偶然的으로 發生한다고 하는 것, 돌발적으로 人間을 곤경에 빠뜨려 버리는 것도 대개 過去 및 現在의 行爲·感情·意志와 그 주변의 雜多한 諸要素와의 相互作用에 의한 綜合的 結果로 본 것이다.²⁹⁾ 얼핏 보기에 그것은 偶發적으로 보이지만, 그렇지 않고 時間·空間의 雄大한 展開속에 놓여진 多種多樣한 要因의 相互作用에서 起因된 것이라고 解釋하였던 것이다. 한 個人의 存在는 결코 단독으로 抽出되는 것은 아니다. 過去 및 現在의 다른 무수한 存在와 微妙한 關係를 지니고 있다. 그러므로 간단하게 한 事件의 깊은 意味를 포착하기는 매우 어려운 것이다.

그러나 G. Eliot는 비록 現實에서는 그 錯綜性을 解明하는 것이 不可能하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거기에 努力을 기울이는 것이 必要하다고 믿었다. 또 그렇게 하므로서 人間存在는 漸次的이지만 前進을 할 수 있다고 確信하였다. 그런 까닭으로 한 人間의 行動이나 感情의 意味를 진실로 理解하기 위해서는 그 個人自體뿐만 아니라 그 周圍(얼핏 보기에 無關하다고 생각되는 것을 포함해서)까지도 可能的한 한 多角的·多面的으로 探究하려고 한 것이다. 그리고 그렇게 하므로서 現實에서 妨害당하고 挫折되면서 살아가는 한 人間의 슬픈 아름다움에 사람들의 共感을 환기시킬 수 있다고 믿었던 것이다.

이렇게 볼 때 G. Eliot는 극히 희미한 소리라도 포착해서, 그것의 苦痛을 感知하는 것과같은 “a keen vision and feeling”(p.226)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We should die of that roar which lies on the other side of silence.”(p.226)의 괴로움을 느꼈음에 틀림없다. G. Eliot는 雜多한 現象을 銳敏하게 포착하고 거기에 숨겨진 깊은 意味를 읽어내는 힘을 지니고 있었다. 그것은 소위 想像力이라고 불리우는 것으로, 그녀 自身에 의하면 “... the imagination that reveals subtle actions inaccessible by any sort of lens, but tracked in that outer darkness through long pathways of necessary sequence by the inward light which is the last refinement of Energy, capable of bathing even the ethereal atoms in its ideally illuminated space.”(p.194)이었다. 그 想像力에 의해서 그녀

29) cf. Barbara Hardy, *op. cit.*, p.116. 여기서 Hardy는 G. Eliot와 Thomas Hardy와의 差異를 “Even where she uses coincidence in the ordinary narrative conventions of discovery and accident, it is hardly ever interpreted as a version of Fate, as it usually is in Hardy, but merely as a narrative means to a moral end.”라고 指摘하고 있다.

는 거미줄처럼 얽혀진 人間關係의 무수한 局面을 더듬고 偶發的 事件이나 공교로운 偶然的 一致, 意圖하지 않은 結果라고 생각되는 것을 그 根源까지 追求하였다. 그리고 숨겨진 意味를 찾아 념으로써 人間生活의 多樣性 가운데 不可思議라는 類似性을 밝히려고 하였다. 結局 그녀는 觀念과 行爲를 分離시키고, 渴望이나 理想을, 敗北나 現實과 區分시키는 무서운 深淵이 實在하는 것이 人間存在의 實體라고 把握하면서, 쓰라린 苦痛을 감수하고라도 폭로시켜 삶의 참 狀況과 眞實을 提示하는 것이 얼마나 값진 일인가를 認識한 것이다. 곧 傲慢한 者, 不義를 行하는 者를 어김없이 응징시킨 그리스神話의 女神 Nemesis로부터 나온 因果應報보다, 抵抗하기 어려운 悲劇性이 人間存在의 普遍性이라는, 보다 次元높은 人生의 眞實을 밝히려고 한 것이다. Casaubon이나 Lydgate, 그외에 Bulstrode와 같은 경우처럼 無益한 苦惱나 뼈아픈 敗北와 悔恨을 그려내는데 있어서 이상하리만치 微妙性과 精密性을 잃지 않았던 것은 悲劇的 存在인 人間一般에 대한 그녀의 깊은 共感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G. Eliot는 敗北와 挫折만으로 人間存在의 普遍性을 찾아낸 것은 아니다. 여기 複雜하게 짜여진 스토리가운데서 意味깊은 하나의 對照에 注意하자. 人物의 相互關係는 이미 말한 바와 같이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며 제각기의 性格을 規制하여 간다. 그러나 그 영향의 方向을 注意하지 않으면 안된다. 作中人物을 大別하면 하나는 感受性이 缺如된 自己中心의 人 者이고, 다른 하나는 함께 괴로와하는 人間에게 限없는 사랑을 쏟고 남의 괴로움을 理解해주는 사람들이다. 前者만의 相互關係는 Lydgate와 Rosamond, 또 小說의 前半에 있어서 Dorothea와 Casaubon의 경우와 같이 轉落, 失敗, 暗影을 招來하는데 대해, 前者와 後者와의 接觸은 覺醒, 成功, 光明을 가져온다. 그것은 Lydgate나 Rosamond가 Dorothea와 交際를 갖는 경우, 혹은 Fred가 Garth家의 사람들이나 牧師 Mr. Farebrother와 接觸하는 경우 등에 보인다.

Fred의 경우에 대해서 본다면, 최초로 登場할 때의 그는, 自身の 行動이 他人들의 生活에 영향을 미칠 것을 알지 못하는, 感受性이 缺如된 젊은이이다. 約束한대로 돈을 갚지않고 Garth家에 크나큰 恥를 끼친 때에도, 그들의 곤궁은 미처 생각치도 못하고, 오직 그때문에 그들로 부터 나쁘게 여겨지고 있지 않나 하고, 自身에 대한 評價를 걱정할 따름이다. 그러나 그가 지불하지 않은 借用金의 返濟에 Mrs. Garth와 Mary가 辛苦의 저축금으로 充당하려고 한다는 것을 알고 겨우 自身の 利己性을 意識하게 된다. 이와 비슷한 일이 Mr. Farebrother와의 關係에 있어서도 發生된다. Fred는 Mr. Farebrother의 Mary에 대한 思慕의 情을 미처 눈치채지 못하고, Mary와의 結婚仲介를 공교롭게도 이 牧師에게 依賴한다. 그러나 牧師는 自身の 思慕를 누르고 Fred를 위해서 힘쓴다. 나중에 그것을 안 Fred는 그 일로 인해서 크나큰 시련이 되고, 그 人間的 成長을 促進시킨다. 未熟한 精神이 高貴한 精神과 사귄으로써 成長을 하는 이와같은 예는 人間變容의 方向이 共感의 存在如何에 달려 있

는 것을 意味하는 것으로써³⁰⁾ 作家가 이 作品에서 描寫하려고 한 存在方式의 本質을 나타내고 있다.

이와같이 본다면, 作品上에 나타나는 複雜한 對比, 成功과 失敗의 交錯은 無秩序와 混亂의 印象을 줄 지도 모르지만, 實은 G. Eliot 自身の 生涯의 展開를 想起시켜, 人間生活의 多樣性 가운데 類似性 (“the broad sameness of the human lots”)을 暗示하고, 作品全體로서는 긴밀한 統一性을 지니고 있는 것을 理解할 수 있다.

*Middlemarch*의 有機的 統一性은 William Thackeray의 *Vanity Fair*와 比較하면 한층 명백해진다. 後者は 처음 다달이 發表되는 연속물이었을 때는 “Pen and Pencil Sketches of English Society”라는 副題가 붙어 있었지만, 後에 책의 形態로 發刊된 때에는 “A Novel Without A Hero”로 變更되었다. 나중의 副題는 여러가지 意味로 解釋되지만, 어쨌든 이 두가지 副題가 보이는 것처럼 Thackeray의 小說의 軸점은 作中人物에 두지않고, 갖가지 人物들에 의하여 形成된 社會一般에 向해지고 있다. Thackeray가 提示하는 社會의 그림은 겹게 물들여져 있어서 그러한 점에서 그 作品은 一種의 統一을 지녔다고 말할 수 있다.

그러나 Thackeray의 경우, 社會는 人物의 混然한 集合으로 存在하는 것으로서 人間存在에게 影響을 준다고 表現되지 않고 있다. 그리고 그가 그린 人生의 諸相은 어김없이 어두운 無秩序의 印象을 주고 있다.

*Middlemarch*에 있어서도 그와 마찬가지로 多樣한 人間生活의 諸相이 混然하게 提示되고 있는 것처럼 여겨진다. 그러나 *Vanity Fair*와는 달리, 人間生活의 多樣性이 美醜, 明暗의 動的인 對照가운데 놓여져, 그것에 의해 人間의 기쁨과 슬픔의 參된 共同體를 構成하는 다섯가지 plot의 共存위에 짜여진 人生무늬의 多樣性이 集中的으로 統一되어 나타난다. 이러한 差異는 두 作家間의 世界觀의 差異로부터 연유된 것으로 볼 수 있다. *Vanity Fair*와는 달리, *Middlemarch*는 社會를 人物에 의하여 構成되는 것만으로만이 아니라, 構成要素인 人物에게 作用하는 힘을 지닌 것으로 提示하고 있다. 따라서 社會는 人物에 依存하는 것이기도 하며, 人物은 다시 그 環境에 의하여 條件지워지는 것이다.

G. Eliot는, 社會가 個人에게 미치는 抵抗하기 어려운 影響력을 重視함으로써, Thackeray보다도 깊은 洞察을 人間生活에 加하여 人間生活의 多樣性에 意味깊은 調和를 부여하는데 成功한 것이다.

30) cf. David Daiches, *op. cit.*, pp.56-57. Daiches는 Garth家の 사람들이, 이 作品의 登場人物들 중에서도, 가장 잘 描寫되어 있으며,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이 小說의 moral의 中心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고 있다고 解釋하고 있다. 이 解釋은 作家가 ‘Sympathy’의 意義를 強調하였다고 하는 그의 主張을 다른 觀點에서 說明한 것이다.

G. Eliot가 John Blackwood에게 보낸 편지³¹⁾에서, 또는 *Romola*에 관하여 R.H.Hutton 앞으로 보낸 편지³²⁾ 등에서 그는 소설에 있어서의 統一性의 重要性을 명백히 밝히고 있다. 이 作品은, 人生의 調和는 知性만으로 얻을 수 없고 知성과 情感의 緊密한 相互作用에 의해서만 얻을 수 있다는 人間의 存在方式으로부터 産出된 創作成果라고 하겠다. 즉 G.Eliot는 人生의 苦闘를 통해서 “깨달음”을 얻은 것처럼, 不完全한 結果를 낳은 創作活動에 의하여 “깨달음”을 얻은 것이다. 그리고 그녀는 그 獨創的인 想像力을 힘차게 발휘하여서 그녀의 人生觀의 重要한 部分을 形成한 것이다. 즉 人生活動의 多樣性속에 眞理的 統一性을 찾는 데 成功한 것이다.

IV. 人間的 紐帶와 共感意識

G. Eliot는 人間存在의 實體를 把握하기 위해서 그 豊富한 想像力을 驅使하면서 多角的·多面的인 接近을 試圖했다는 점에 대해서 살펴 왔지만, 그 接近方法은 다음과 같이 觀點의 移動이라고 하는 手法에도 잘 나타나고 있다:

In watching effects, if only of an electric battery, it is often necessary to change our place and examine a particular mixture or group at some distance from the point where the movement we are interested in was set up(p.434).

이것은 Dorothea로부터 Garth家の 사람들에게 스토리를 옮길 때, 그 옮기게 된 理由에 대해서 作家가 提示한 說明이다. 이처럼 G. Eliot는 實體의 把握에 있어서 觀點의 移動을 重要視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러면 作中人物인 Casaubon을 통해서 이 觀點의 移動이란 手法의 內容을 살펴 보기로 한다.

이 作品의 序頭에서 Casaubon은 그저 다른 作中人物의 입을 통해서만 描寫된다. 예컨대 Mrs. Cadwallader는 야위고 안색이 나쁜 그를 보고 “He does not want drying.”(p.117)라고 評하고 Lady Chettam이 “I should think he is far from having a good constitution…”라고 대답하자, 그녀는 “Really, by the side of Sir James, he looks like a death’s head skinned over for the occasion”(p.117)라고 말한다. 그리고 Casaubon의 術學性은 Celia나 Sir James를 통해서뿐만 아니라 Dorothea에게 보낸 그 自身の 편지에 의해서도 나타난다. 그러나 外部를 통해서 나타나는 評價는 誤解를 誘發하는 경우가 많음을 強調하는 作家는 視點을 內部로 移動시킬 必要性을 느낀다:

31) *The George Eliot Letters*, V, 168.

32) *The George Eliot, Letters*, N, 97.

Suppose we turn from outside estimates of a man, to wonder, with keener interest, what is the report of his own consciousness about his doings or capacity: with what hindrances he is carrying on his daily labours; what fading of hopes, or what deeper fixity of self-delusion the years are marking off within him; and with what spirit he wrestles against universal pressure, which will one day be too heavy for him, and bring his heart to its final pause. Doubtless his lot is important in his own eyes(p.110).

즉 外部로 부터 어떠한 評價를 받든지, 人間은 누구나 獨自의 世界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그것을 올바르게 認識하지 않으면 人間에 대한 正當한 評價를 내릴 수 없다는 G.Eliot의 따뜻한 人間觀이 진술되고 있다. 人間存在의 기묘한 複雜性을 잘 알고 있었던 作家는 Casaubon의 마음속 깊이 숨겨진 想念을 無視할 수 없었던 것이다. 여기에 이르러서 作家의 날카로운 視覺이 Casaubon의 內的生活에 깊숙히 集注되자, 그의 個性이 뚜렷하게 浮上한다. Dorothea가 新婚旅行에서 돌아 왔을 때, Lowick 저택에서 받은 암울한 印象을 記述한 다음 作家는 다시 Casaubon에게 視點을 移動시킨다:

One morning, some weeks after her arrival at Lowick, Dorothea - but why Dorothea? Was her point of view the only possible one with regard to this marriage? I protest against all our interest, all our effort at understanding being given to the young skins that look blooming in spite of trouble; for these too will get faded, and will know the older and more eating griefs which we are helping to neglect. In spite of the blinking eyes and white moles objectionable to Celia, and the want of muscular curve which was morally painful to Sir James, Mr Casaubon had an intense consciousness within him, and was spiritually ahungered like the rest of us(p.312).

여기에는 皮相적으로 바라보는 사람들에 의해서 輕視당하는 男子에 대한 共感이 넘치고 있다.³³⁾ Casaubon의 內部를 注視함으로써, 다른 사람에게서는 깨달지 못하는 面, 곧 그의 弱함과 同時에 Dorothea와 Ladislaw에게 대하는 그의 態度의 正當性을 밝혀주고 있다. 그의 內的 世界를 把握하므로써 Dorothea가 그에게 연민을 느끼게 된 것처럼, 그의 內的苦惱의 폭로는 그에 대한 연민을 讀者들에게 불러 일으킨다. Casaubon은 악화된 自身の 건강과 結實

33) *The George Eliot Letters*, V, 411. 作家는 Casaubon이 共感을 갖고 描寫되어 있음을 알아준 讀者에게 "Mr. Collins has my gratitude for feeling some regard towards Mr. Casaubon, in whose life I lived with much sympathy" 라고 謝意를 표현바 있다.

을 맺지 못한 研究를 意識하고 있지만, 그것이 다른 사람에게 알려지는 것을 매우 두려워하고 있다. 世上으로부터 期待해도 얻을 수 없는 칭찬을 젊은 아내에게 期待했지만, 그녀의 愛情도 Casaubon의 實體를 모르고, 허공의 理想에만 사로잡혀 있어서 도리어 남편으로 하여금 견딜 수 없는 苦痛을 받게 한다. 젊고 아름다운 아내가 信賴와 愛情을 바치면 바칠수록 自身이 그것에 미칠 수 없음을 Casaubon은 自覺하고 있다. 그래서 그녀에게 眞實을 告할 수 없음을 느낀다. 남편을 위하여 도움이 되려고 하는 Dorothea의 所望도, Casaubon 에게는 “She was a personification of that shallow world which surrounds the ill-appreciated or desponding author.” (p.233) 일 따름이다. Casaubon이 아내에게 품는 不滿과 恐怖心은 無能하면서도, 자신의 內面世界속에 孤高히 은거하려는 虛榮과 自負心에 根本的 原因이 있는 것이다. 勿論 아내가 남편의 內心을 파악하지 못하는 것에도 原因이 있다. 그러므로 “... and what loneliness is more lonely than distrust?” (p.480) 라고 말하며 作家는 Casaubon의 상처받은 어리석음에 共感을 호소한다. 그러나 실지 그를 대하는 讀者의 共感은, 觀點의 移動에 의하여 하나의 行爲가 갖는 兩面性을 깨달는 데서 우러나온다. Casaubon은 Ladislaw가 근처에 居住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結局 Ladislaw가 都市를 떠나지 않겠다고 主張하자, 그는 Dorothea가 그러한 決定의 原因일 것이라고 疑心한다. 여기에 대해서 知人에게 의논하려고 생각하지만 그것을 行動으로 옮기지 못한다. 따라서 空虛한 自慢에 가득찬 그의 混亂은 다음과 같이 表現되어 있다:

Poor Mr. Casaubon was distrustful of everybody's feeling towards him, especially as a husband. To let any one suppose that he was jealous would be to admit their (suspected) view of his disadvantages: to let them know that he did not find marriage particularly blissful would imply his conversion to their (probably) earlier disapproval. It would be as bad as letting Carp, and Brasenose generally, know how backward he was in organizing the matter for his 'Key to all Mythologies.' All through his life Mr. Casaubon had been trying not to admit even to himself the inward sores of self-doubt and jealousy. And on the most delicate of all personal subjects, the habit of proud suspicious reticence told doubly.

Thus Mr. Casaubon remained proudly, bitterly silent(p.412).

Rosamond는 처음 “Nature had inspired many arts in finishing Mrs. Lemon's favorite pupil, who by general consent (Fred's excepted) was a rare compound of beauty, cleverness, and amiability.” (p.301) 라고 描寫된다. 그러나 이윽고 그녀가 虛榮心에 가득찬 利己的이고 어리석은 女性임이 判明된다. 그녀를 描寫하는데 있어서 作家의 抑制된 irony를 듣게 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Lydgate를 轉落으로 빠뜨리는 그녀의 좁은

利己性을 描寫할 때까지도 作家는 그녀의 觀點에 선다. 그리고 아무리 제멋대로의 女性이라도 그固有의 感情과 苦痛을 지니고 있음을 力說한다(p.403). 作家는, Rosamond가 남편에 대한 혐오감을 느끼고 있는 것도 어떤 意味에서는 당연하다고 생각하여 “Why he had not told her everything?” He did not speak to her on the subject, and of course she could not speak to him”.(p.813)라고 作家는 그녀를 辯護한다. 그녀의 입장에서 본다면 남편은 항상 떨어져 있는 存在로서 그녀가 反對하는 일을 하고 있었다. 따라서 Lydgate가 그녀의 行動을 어떻게 보든지 그녀쪽에서는 또한 “She was convinced of her having acted in every way for the best…”(p.711)이었다.

Mr. Bulstrode도 처음에 모습을 드러내는 段階에서는 Casaubon과 마찬가지로 作家에 의하여 直接 描寫되는 일이 없이 外部로부터 描寫될 따름이다. 그러나 스토리의 進行에 따라 차차 作家는 그의 過去의 수치스러운 行爲自體보다는 그 行爲에 이르지 않을 수 없었던 事情과 그것에 대한 그의 內的苦痛을 讀者에게 보여주어 外部에 表出되는 僞善性에 憐憫을 느끼게 한다.³⁴⁾

*Middlemarch*에 있어서는 이처럼 觀點移動의 重要性이 認識되는 경우가 많지만 그와 함께 作家自身에 의한 註釋도 人物描寫의 重要한 方法이 되고 있다. 그러나 이 作品에서는 다른 것보다도 作家와 讀者와의 直接的인 接觸은 적어지고 있다. 그 때문에 讀者는 創造된 世界 自體에 關心을 集中하도록 要求된다. 장황한 意見이나 脫線을 자랑스럽게 느끼고 있는 Fielding에 관해서 G. Eliot는 “But Fielding lived when the days were longer (for time, like money, is measured by our needs)”(p.170)라고 말한 後 곧 이어서 다음과 같이 說明하고 있다:

We belated historians must not linger after his example; and if we did so, it is probable that our chat would be thin and eager, as if delivered from a camp-stool in a parrot-house. I at least have so much to do in unravelling certain human lots, and seeing how they were woven and interwoven that all the light I can command must be concentrated on this particular web, and not dispersed over that tempting range of relevancies called the universe (p.170).

이와같이 말하며, 事實上 人間存在의 錯綜에 客觀的 探究를 多面的으로 進行시키고 있다. 그러나 作家에 의한 直接的 介入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다만 註釋의 대부분은, 作中人物의 어떤 缺陷이, 어느 意味上으로는 自然스러우며, 人間 大部分의 共通의 特性임을 밝히는

34) Barbara Hardy, *op. cit.*, pp.183-84. Hardy는 Bulstrode의 內的 苦惱가 直接的으로 表現되지 않고 暗示에 그칠 경우에도, 그것에 대한 讀者의 共感이 喚起되는 例를 들고 있다.

에 지나지 않는다. 즉 그것들은 作中人物의 特定の 行動이나 感情을 人間一般과 關聯 지움으로써 讀者들에게 客觀的 眞實을 理解시키려고 해서 加해진 것이다. 따라서 그것은 때로는 빈정거리는 語調를 나타내기도 하고, 반대로 同情的인 경우도 있다. 요컨대 註釋은 作中人物을 創造하는 作家의 깊은 共感의 發露로서, 날카로운 心理分析과 생생하게 그려진 人間關係는 한편의 drama와도 같이 느껴진다.

예컨대 Eliot는 "Mr. Casaubon, too, was the centre of his own world."라고 말한 후에 "...this trait is not quite alien to us, and, like the other mendicant hopes of mortals, claims some of our pity" (p.111)라고 註釋을 붙여, 自己中心性이 人間의 普遍性인 점에 注意를 환기한다. 게다가 정숙한 젊은 아내의 친절함과 순종때문에 오히려 고민에 빠지는 것에 대해서는 "Instead of wondering at this result of misery in Mr. Casaubon, I think it quite ordinary. Will not a tiny speck very close to our vision blot out the glory of the world, and leave only a margin by which we see the blot? I know no speck so troublesome as self" (p.456)라고 말한다. 즉, Casaubon이 自己立場만 고집하여 아름답고 젊은 아내의 헌신마저도 曲解하고 있는 것은 그의 어리석음의 表出에 불과하다. 그러나 作家는 그것이 바로 人間의 벗어날 수 없는 弱點임을 指摘하여 그에 대한 共感을 讀者들에게 誘導하려고 한 것이다.

Fred가 Caleb Carth의 愛情을 배반하여 그 一家를 負債에 허덕이게 할 때의 利己的 無感覺에 대해서는 "With the superfluous securities of hope at his command, there was no reason why he should not have increased other people's liabilities to any extent, but for the fact that men whose names were good for anything were usually pessimists, indisposed to believe that the universal order of things would necessarily be agreeable to an agreeable young gentleman." (p.262)라고 Fred의 無分別함을 辨護한다.

Dorothea의 行動에 대해서도, 作家는 Casaubon에게도 그나름의 自我가 있는에도 불구하고, Dorothea가 이를 認識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指摘을 통해 "We are all of us born in moral stupidity, taking the world as an udder to feed our supreme selves..." (p.243)라고 말함으로써 Dorothea의 自己中心的 愚鈍을 人間의 一般的 屬性에 귀결시키고 있다.

事業과 宗教活動의 相異한 두가지 生活을 하고 있는 Mr. Bulstrode에 관해서는 "If this be hypocrisy, it is a process which shows itself occasionally in us all..." (p.667)라고 말한다. 이처럼 人間이 지니고 있는 二元性을 暗示하므로써, 그를 간단히 非難하려는 立場에 한층 폭넓은 視野를 要求하고 있다.

또한 理想에 불타고 일을 뿐 變愛에는 전혀 關心조차 없는 Lydgate의 준수한 의모와 훌륭한 매너에, Rosamond가 完全히 매혹되는 事實에 대해서 作家는 "...and it was excusable

in a girl who was accustomed to hear that all young men might, could, would be, or actually were in love with her, to believe at once that Lydgate could be no exception.”(p.196)라고 말하며 그녀의 우쭐한 생각에도 同情的 見解를 피력한다.

반면에 Lydgate에 대한 作家의 同情的인 註釋 또한 수없이 많다. 우선 그가 Dorothea에게 好感을 갖고 있지 않음을 기술한 다음, 作家는 “But Lydgate was less ripe, and might possibly have experience before him which would modify his opinion as to the most excellent things in woman.”(p.120)라고 말하며 그의 皮相的 女性觀을 젊은 사람의 無經驗性에 歸着시킨다. 또한 “Lydgate’s spots of commonness lay in the complexion of his prejudices, which, in spite of noble intentions and sympathy, were half of them such as are found in ordinary men of the world…”(p.179)라고 作家는 그의 俗物性에 대한 非難을 염려하며, 훌륭한 사람에게도 俗物性이 있는 것이 人間의 常情임을 讀者들에게 認識시키려고 한다.

Lydgate는 理想實現의 希望을 갖고 찾아 온 Middlemarch에서, 생각지도 못했던 苦難에 말려들어 이 都市에 온 것을 후회한다. 또한 都市사람들이 그의 運命을 妨害하였다고 원망하며, Rosamond가 있는 곳으로 가는 것을 꺼리게 된다. 이러한 Lydgate의 그 격렬하고 不合理的 感情에 대한 作家의 註釋은 다음과 같다:

Only those who know the supremacy of the intellectual life - the life which has a seed of ennobling thought and purpose within it - can understand the grief of one who falls from that serene activity into the absorbing soul-wasting struggle with worldly annoyances (p.793).

즉 높은 理想과 眞善美의 價値를 追求하는 活動에는 많은 곤란이 뒤따르지만, 그 곤란과의 苦闘에는 오히려 마음의 즐거움이 있다. 그러나 現實社會의 俗物的인 人間關係에 만연되어 있는 策略이나 虛偽의 거미줄에 휘말려들면, 순수성과 誠實을 지키려는 靈魂은 무참하게 파멸될 수 있는 것이다. 그 붕괴의 苦惱와 悲劇에 G. Eliot는 깊이 共感할 수가 있었다. 그것은 作家自身이 높은 理想에 情熱을 불태우면서 쓰라린 挫折의 經驗을 겪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것은 바로 現代人의 苦惱일 수도 있다. 學問研究에 뜻을 두면서, 理論이나 道理가 適用되지 않는 人間關係의 不合理性이나 策略的 움직임에 휘말려든 經驗의 所有者라면 누구나 Lydgate의 苦惱를 理解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G. Eliot는 이러한 問題에 대한 一般讀者의 理解를 돕고 客觀性을 부여하기 위해 作家로서의 說明을 삼입시킨 것이다.

그러나 Dorothea와 Ladislav의 關係에 있어서는, 그들에 대한 作家의 愛着이 不知不識中

에 作用하여 客觀性을 잃고 있다는 非難을 받는 경우가 있다.³⁵⁾ 이 點에 대해서 한번 考察해 보기로 한다.

Ladislaw는 詩를 쓰지 않는 詩人, 그림을 그리지 않는 畫家로서, 여러 면에서 皮相的인 知識밖에 갖고 있지 못하다. 더구나 品行이 단정치못하고 目的意識이 결여된 生活態度로 인하여 世上의 非難을 많이 받는다. 그러나 그는 가난한 아이들에게 마음을 쓰는 친절성을 지녀, Farebrother 一家, 특히 Miss Novel에게 認定을 받고 있다. 이 Miss Novel은 그로부터 받은 독일製의 箱子를 마치 보물처럼 소중히 여긴다. 또 Mr. Brooke로부터는, 自由와 解放을 求하는 熱烈함 때문에 Shelley와 같은 사람으로 認定된다. 이러한 점에서 다소 ironical한 면이 있지만, 어쨌든 그에게 好感을 갖는 사람도 많다는 것을 敘述함으로써 作家는 그가 Dorothea의 愛情을 받는데 대한 當爲性을 나타내려고 한다. 그러나 그것은 Adam과 Dinah와의 關係에서 보이는 것과 같은 作家의 意識的 作爲性³⁶⁾을 느끼게 한다.

Rome의 호텔에서 Ladislaw가 Casaubon과 對面했을 때, 作家는 前者를 太陽의 빛과 같이 환하게 描寫한다. 反面에 後者에게는 퇴색된 빛의 印象을 부여함으로써 두사람을 對照시킨 作家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

As Dorothea's eyes were turned anxiously on her husband she was perhaps not insensible to the contrast, but it was only mingled with other causes in making her more conscious of that new alarm on his behalf which was the first stirring of a pitying tenderness fed by the realities of his lot and not by her own dreams. Yet it was a source of greater freedom to her that Will was there ; his young equality was agreeable, and also perhaps his openness to conviction (pp.241-42).

35) Will Ladislaw를 失敗한 人間像으로 보는 점에 있어서는 많은 批評이 一致하고 있다. 이를테면 W. J. Harvey도 "When all is said and done, he (i. e. Will Ladislaw) remains a radically unsatisfactory character, the weakest thing in the novel, and Dorothea, in so far as she is involved with him, shares that weakness"라고 말하고 있다. cf. W. J. Harvey, *The Art of George Eliot*. (London: Chatto & Windus, 1961), p.195.

36) cf. Jerome Beaty, "Middlemarch" from Notebook to Novel," *A Study of George Eliot's Creative Method* (Illinois: Univ. of Illinois Press, 1960), p.88. 여기서 Beaty는 이 두사람의 結婚이 作家의 最初의 構想속에 들어 있었음을 "That Will and Dorothea were to get married, much to the chagrin of some readers, had been decided upon from the time the very earliest plans for *Middlemarch* were entered in the notebook: "Dorothea's second marriage" appears in the list of "Private dates" on *Quarry II*, 4."라고 指摘하고 있다.

Dorothea가 Casaubon의 實體에 대한 認識에 눈을 뜨기 시작함을 作家는 말하고 있지만 同時에 그녀가 Ladislaw의 밝은 젊음에 魅了 되는 面도 示唆하고 있다.³⁷⁾ 이것을 Casaubon과 對照的인 Ladislaw가 그녀에게 現實認識에의 길을 비춰주는 역할을 한다고 말할 수 있다. Rosamond의 방에서 Ladislaw를 목격한 때의 Dorothea의 경악은 痛切하였지만, 여기서도, 또한 逆說的으로, 그에 의하여 Dorothea는 現實을 認識하게 되는 것이다. 그 후 苦悶의 하룻밤을 지낸 다음 Rosamond를 다시 訪問함으로써 그녀는 새로운 生命意識을 부여받게 된다. 그녀는 Rosamond를 救하기 위해서 나선 것이었지만, 결국은 Lydgate와 Ladislaw및 그녀 自身도 救하는 結果가 된 것이다. 이와같은 Dorothea의 成熟에 作用하는 Ladislaw의 역할을 보여주기 위하여 作家는 여러가지 情況을 포개어 간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한편, 作家는 意識的으로 Ladislaw를 Dorothea에게 견줄 수 없는 男子로 描寫하였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David Daiches는, Ladislaw가 어느정도 理想的 人物로 描寫되어 있지만, 가끔 作家가 그를 비꼬는 대목과, 그의 誇張된 表現이나 感情의 不安感 등을 說明하는 作家의 註釋을 몇 가지 指摘하고 있다.³⁸⁾ 어떤 의미에서 이 指摘은 意味가 깊다. 作家의 根本的인 人間觀이 여기에서 다시 想起되지 않으면 안된다. Casaubon이 獨逸語를 모르고 있기때문에 Ladislaw로부터 非難받게 한 다음 “Young Mr Ladislaw was not at all deep himself in German writers; but very little achievement is required in order to pity another man's shortcomings.” (p.240)라고 作家는 痛烈하게 비꼈다. 그러나 곧 Ladislaw가 언제나 完全하다고 할 수 없다고 記述하므로써, 作家가 Ladislaw를 결코 完全한 人物로서 創造한 것이 아님을 強調하고 있다. 이것은 G.Eliot가 創造한 대부분 人物들의 경우에서처럼 어떠한 人物도 반드시 美點과 缺陷을 함께 갖는다는 人間把握의 realism을 具現시킨 것이라고 說明될 수 있다.

이와 같은 作家의 人生觀의 適用은 Dorothea에게도 마찬가지이다. 不幸한 結婚生活의 苦痛으로부터 現實認識에 눈을 떴어야 할 Dorothea는 Ladislaw와 結合하기 直前까지도 少女趣味의 善行의 憧憬을 계속한다. 그것은 그녀에게 아직도 追求해야 할 人生成熟에의 길이 남겨져 있음을 意味하는 것이다. 이렇게 볼 때 作家가 盲目的 愛着에 사로잡혀 Dorothea를 理想化한 것이 결코 아님을 알 수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G.Eliot는 作中에 登場하는 거의 모든 人物에게 온갖 美와 醜가 混合된 事實의 人間性을 부여하고 있다. Dorothea와 Ladislaw도 例外는 아니다. 그러나 作家의 아버지에게 가깝다는 Caleb Garth에게 一種의 理想的 人間像을 부여하려고 하는 것

37) Daiches, *op. cit.*, pp.43-45.

38) Daiches, *op. cit.*, p.22.

처럼, 作家自身이 愛着을 갖고 創造한 Dorothea³⁹⁾와 Ladislaw에게 많은 缺點을 부여하면서도 自己도 모르게 一種의 希願을 걸었기 때문에 理想的인 人間像으로 美化된 듯한 느낌을 주기도 한다. 그러나 G.Eliot는 觀點移動의 手法이나 註釋의 方法을 사용하여, 그가 作中에서 創造한 人物들에게 寫實的이며 客觀的인 人間像을 多樣性있게 부여함으로써, 人物性格 創造의 極致을 이루어 놓고 있다.

V. 結 論

*Middlemarch*를 통해, G. Eliot는 選舉法改正案이 議會를 通過하기 前後에 있어서의 英國地方生活의 多樣한 樣相을 描寫하고 있다. 그러나 그것은 결코 단순한 社會小說에서 머무르지 않는 것이다. G.Eliot는 이러한 變遷의 時期에 特徵지워지는 갖가지의 복잡하고 불가해한 精神文明의 動搖와 人間關係의 微妙함을 作家特有의 냉철한 鑑識眼으로 다양하고도 정성스럽게 分析하고 있다. 繼承된 慣習과 時代의 變動은 多樣한 個性에 여러가지 影響을 끼치고, 또 그 個性은 그 環境에 여러가지로 反應해간다. 그 複雜多岐한 人間生活의 實體를 그려내면서, 作家는 人間生活에 가장 重要한 것으로서 “sympathy”를 強調하였다. 그것은 執拗한 自我에 의하여 황폐하여지는 驟然한 魂의 苦惱를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G.Eliot는 過去의 좋았던 時節에 대한 借別의 情을 금할 길이 없었지만, 결코 過去의 romantic 한 안개 속에 滿足할 만큼 安易하지 않았다. 어릴 적에 이미 그녀는 淺薄한 我欲과 快樂에의 欲望과 다투지 않으며 안되었다. 그리고 利己主義에서 벗어나고자, 一時的으로 自己拋棄에 의하여, 모든 感情이나 思想의 自然的 發動을 抑壓하려고 한 때도 있었다. 이것은 *The Mill on the Floss*의 Maggie의 魂의 遍歷에서 가혹하게 더듬어져 있다.⁴⁰⁾ 이 *Middlemarch*에서 뿐만 아니라 主要作品에 登場하는 人物의 大部分이 egoist인 점은, 一生을 통해서 自我와 대결하며 苦闘를 繼續한데서 비롯된 것이다. 自己自身の 內部에 egoist의 諸面을 지니고 있었기 때문에 그녀는 我執이 강한 사람의 內的爭鬪, 또는 利己의 마음의 騷亂을 微細하게 描寫할

39) cf. *The George Eliot Letters*, V, 308. G. H. Lewes는 John Blackwood에게 보낸 서한 속에서 “Surely Dorothea is the very cream of lovely womanhood? She is more like her creator than any one else and more so than any other of her creations. Only those who know her (Dodo — or her creator) under all aspects can have any idea of her.” 라고 말하며 Dorothea가 G.Eliot의 作中人物 가운데 가장 作家自身에게 가깝다고 진술하고 있다.

40) cf. Lionel Stevenson, *The English Novel, A Panorama* (London: Constable, 1960), p. 364. 利己主義가 모든 惡의 根源이며, 自己犧牲이 最高의 善이라는 確信을 G. Eliot에게 준 것은 아마도 Spinoza의 影響일 것이다.

수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Middlemarch*에서 作中人物의 熱望을 妨害하고 枯渴시키는 것은 그들의 內部뿐만 아니라 外部의 要素 가운데도 있다. 經濟的 狀況에 의하여 크게 左右되는 人物이 수없이 나타나는데 그 代表的 例이다. Lydgate, Rosamond, Fred, Mr. Bulstrode —— 이들은 모두 經濟的 諸條件에 의하여 그들의 生活에 變化를 강요 받는다.

作家가 描寫한 人生의 構成要素는 人間內外的 世上事의 複雜한 罅힘이다. 한 人間의 경우에 있어서도 理性和 感情, 私的인 것과 公的인 것, 過去와 現在 등 여러가지 相反的 要素가 共存하면서 罅혀져 있다. 더 나아가, 한 人物과 다른 人物, 個人과 社會와의 關係에서 人間生活의 實體는 여러가지 要素가 서로 눈에 보이지 않는 複雑한 連繫性으로 構成되어 있다. 그녀는 人生이 단순한 單一物이 아니라 “複雜하게 罅혀 있는 것”⁴¹⁾이라고 認識하였다. 또한 人間存在의 實體는 二元的이어서, 暗黑과 光明, 感覺과 知力, 自我와 非自我, 호랑이와 羊과의 共存이 그러하듯, 二元性에서 오는 人生의 難澁을 누구보다도 잘 認識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러므로 그녀는 한쪽을 讚美하고 다른 쪽을 물리치는 일은 하지 않았다.

G. Eliot는 無限이란 것은 二重性을 지니므로 모든것을 自我속으로 吸收하는 것으로는 아무도 참된 存在를 達成할 수 없다고 보았다. 바로 이러한 人間存在의 悲劇的 二面性에 대한 認識에서 부터 *Middlemarch*의 유례없는 成果 —— 人間과 自然에의 투철한 洞察, 人物描寫의 多樣性和 精緻, 內的心理의 微妙한 움직임의 解明, plot의 多樣性에 있어서의 統一, 描寫하고자 하는 素材로부터의 超脫 —— 이 結實된 것이다.

Dorothea의 悲慘한 結婚과 Lydgate의 轉落은 모두 觀念的 熱望의 結實을 맺지 못한 空虛感을 보이고 있다. 이것은 情感和 理性사이의 相剋이 人間存在의 實體이며, 自身の 性格과 自由意志가 선택한 行爲와 그 周圍의 보이지 않는 실과의 奇怪한 罅힘에 의해서 敗北나 轉落의 運命을 맞이하게 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 作品이 內容上으로 暗鬱한 분위기를 주고 있는 것도 否定할 수 없다. 그러나 그것은 人間存在에 絶望感을 주기보다는 光明이라는 反對的 要素를 한층 浮刻시켜주고 있다. 요컨대 이 作品은 人間行動의 모든 意味를 強하게 意識하게 하므로써, 讀者에게 人間進步에의 確固한 信念을 심어주고 있다.

G. Eliot가 人間生活에 絶望하였기 때문에 삶 的 갖가지의 어두운 面을 描寫한 것은 아니다. 그녀의 生涯的 思想을 考察해 보면 個性의 尊嚴性에 대한 信念이 나이와 더불어 더욱 강해졌다고 믿는다. G. Eliot가 作中에서 社會的 地位가 낮은 사람들에게 再三 注意를 促求한 것도 個性의 尊嚴性에 대한 신념의 表出이다. “Having made this rather lofty com-

41) “a mixed entangled affair” cf. G. Eliot, *Adam Bede* (Boston: Paperback, 1948), p.266.

parison I am less uneasy in calling attention to the existence of low people by whose interference, however little we may like it, the course of the world is very much determined.” (p.448) 라고 생각한 그녀는平凡한 生活에 포함되어 있는 깊은 意味를 表出시키려고 努力하였다. 그 重要性에 대해서 이 作品의 마지막에 다음과 같이 敘述하고 있다:

Her finely-touched spirit had still its fine issues, though they were not widely visible. Her full nature, like that river of which Cyrus broke the strength, spent itself in channels which had no great name on the earth. But the effect of her being on those around her was incalculably diffusive: for the growing good of the world is partly dependent on unhistoric acts; and that things are not so ill with you and me as they might have been, is half owing to the number who lived faithfully a hidden life, and rest in unvisited tombs (p.896).

上述의 말은, 'Prelude'에서, 16世紀 Spain의 聖테레사에게 높은 讚辭를 보낸 것과 同一한 意味를 지니고 있다. 거기서 作家는 聖테레사를 “ Here and there is born a Saint Theresa, foundress of nothing, whose loving heart-beats and sobs after an unattained goodness tremble off and are dispersed among hindrances, instead of centering in some long-recognizable deed.” (p.26) 라고 말하며, 아마도 그 存在조차 알려지지 않고 태어나고 죽어가는平凡한 사람들의 生活속에, 事實은 人間存在의 깊은 意味가 숨겨져 있음을 指摘하고 있다. 上記의 두 引用文이 바로 *Middlemarch*에 나타난 主題意識을 代辯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아무리 社會的 身分이 천하고 또 才能이 없는 者라도, 또한 缺點이 많고 잘못을 저질러 過去의 罪에 떨고 있는 者라 하더라도, 그의 人生의 슬픔에 共感하는 것이 作家의 人間觀이며, 이것이 바로 이 小說의 出發點이었다 :

I share with you this sense of oppressive narrowness;but it is necessary that we should feel it, if we care to understand how it acted on the lives of Tom and Maggie - how it has acted on young natures in many generations, that in the onward tendency of human things have risen above the mental level of the generation before them, to which they have been nevertheless tied by the strongest fibres of their hearts. The suffering, whether of martyr or victim, which belongs to every historical advance of mankind, is represented in this way in every town, and by hundreds of obscure hearths...”⁴²⁾

42) G. Eliot, *The Mill on Floss* (Boston: Paperback, 1961), Ch. I, II, p.6.

G. Eliot는 人間을 評價하는데 있어서 하나의 規則만을 適用시키는 確立성을 止揚하였다. 따라서 小説이라는 藝術매체를 통해 人生問題에 대한 結論을 誘導하기보다는 그 自體에 共感하는 것이었으며, 作家的 知성에 의해 一般化하고 抽象化하기보다 感情이나 感覺을 통하여 人間生活의 實體를 觀察하고 認識하는 作業을 수행하였다. 그녀는 人間이 意識하지 못한 가운데 人生의 舞臺에서 各者의 役割만 하게 되는 嚴肅한 神秘性을 感知하고 있었다. 따라서 그녀가 感得한 人間存在의 諸相을 가능한 한 많이, 그것도 精密하게 提示하려고 努力하였다. 이 描寫의 多樣性 때문에 그녀의 作品이 調和를 缺如한 듯한 印象을 주기도 한다. 그러나 사실상 그것은 人間存在에 대한 그녀의 深化된 意識을 表出시키고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해 Henry James는 다음과 같은 讚美를 보내고 있다:

What is remarkable, extraordinary — and the process remains insensations and mysterious — is that this quiet, anxious, sedentary, serious, invalidical English lady, without animal spirits, without adventures or sensations, should have made us believe that nothing in the world was alien to her; should have produced such rich, deep, masterly pictures of the multiform life of man.⁴³⁾

요컨대 *Middlemarch*는 內容과 形式의 兩面에서 知성과 想像力의 分離라고 하는 宿命的 問題를 解決하고 個人的 情感을 超脫한 藝術의 폭과 깊이를 드디어 極大化한 大作이라 하겠다. *Adam Bede* 등의 初期의 作品과 比較해도 藝術적으로 현저한 進歩를 보여주는 것은 勿論이다. 初期의 作品은 新鮮함과 깊은 英知를 바탕으로 한 自然스러운 humour에도 불구하고 G. Eliot의 錯雜한 才能이 불균형하게 作用한 作品이다.

*Middlemarch*에 있어서도 知성과 情感과의 間隔이 완전무결하게 이어진 것은 아니다. 本論에서 언급되었듯이⁴⁴⁾ 그녀의 最大의 特質인 知성은 各속 藝術作品의 調和를 깨뜨리는 傾向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小説에 있어서는 G. Eliot의 本質이 훌륭하게 꽃을 피우고 있다.

이 小説에서 G. Eliot는 人間이나 事物에 대한 섬세한 感受性, 즉 平凡한 사람에게 잘 간파되지 않는 삶的美와 眞實을 感得하는 作家的 審美眼과, 전환기에 처한 한 地方都市의 正確하고 생생한 모습을 寫實的으로 描寫하는 넓고 깊은 作家的 知성을 유감없이 발휘하고 있다. 그리고 이상야릇하게 얽힌 人間關係와 微細한 意識 動因에 대한 날카로운 分析을 하고 있다. 따라서 그녀의 多樣한 才能과 넓은 視野가 이 作品에서 훌륭한 結實을 맺어, 小説家로

43) Henry James, "The Life of George Eliot", In: *Partial Portraits* (London: Macmillan & Co., 1988), p.62

44) 本論文 p.8. 參照.

서의 生涯에 最高의 금자탑을 이루고 있다.

요컨대 *Middlemarch*에서는 作家가 自己를 對象과 一致시키는 共感과, 對象의 價値를 識別하는 知性과의 사이에 적절한 균형이 간직되어, 想像的 集中力과 統御的 知力이 제 각기의 特質을 發揮하고 調和를 이루어, 英國小說의 여러 傳統的 特色을 繼承하고, 또한 그것을 綜合하는데 成功하였다고 볼 수 있다.

Summary

Human Ties and Sympathy in *Middlemarch*

Kang Myung-hyo

It is often said that whereas George Eliot's earlier works were natural and spontaneous, her later works, including *Middlemarch*, were deprived of creative imagination and of happy spontaneity. It means that her intellectuality and her fondness for reasoning only impoverished her imaginative resources and brought to her the painstaking efforts of artificial labour.

This paper attempts to argue that she did bring an intellect of that caliber to the service of fiction and her fondness for reasoning did not completely devour her creative instinct. The moral nobility of her inner development with its honesty of purpose lent a deeper spiritual quality to her thought and her readers.

Furthermore, the heart in her was kept alive, even in her later works — especially in *Middlemarch* — by the recollection of her early life and of the scenes and people associated with the feelings of childhood. In *Middlemarch*, by these means, she pierced below the hard crust formed by the years of translating, reviewing and mental overforcing, to the quickening beds of heartfelt memory which lay beneath.

Thus, in *Middlemarch*, she was able to see, in truer perspective, the relations between advancing intellect and backward — yearning affections, to realize the true ties of affection between humankind, and to sympathize with the suffering in more profound sense and not at face value. In *Middlemarch*, searching for the meaning of human life, she also succeeded in isolating imagination from intellectuality, still leaving the work a rich, deep, masterly picture of the multiform of man.

BIBLIOGRAPHY

- Allen, Walter, *George Eliot — Masters of World Literature* (London : Macmillan, 1964).
- Beaty, Jerome, '*Middlemarch*' from Notebook to Novel : A Study of George Eliot's Creative Method (Illinois : The Univ. of Illinois Press, 1960).
- Bennett, John, *George Eliot : Her Mind and Her Art* (Cambridge : Cambridge Univ. Press, 1948).
- Blackwood, John, (ed.), *The Works of George Eliot*, Cabinet Edition, 21 Vols, (Edinburgh and London : William Blackwood & Sons, 1908 — 11).
- Browning, Oscar, *Life of George Eliot* (London : Walter Scott, 1890).
- Cecil, David, *Early Victorian Novelists* (London : Constable, 1934).
- Coveney, Peter (ed.), *Felix Holt* (Middlesex : Penguin Books, 1972).
- Daiches, David, *Middlemarch : Studies in English Literature* (London : Edward Arnold, Ltd., 1963).
- , *The Novel and the Modern World*. (Chicago : The Univ. of Chicago Press, 1960).
- Drew, Elizabeth, *The Novel, A Modern Guide to Fifteen English Masterpieces* (New York : Dell Publishing Co., 1963).
- Fremantle, Anne, *George Eliot*. (Great Lives Series) (London : Duckworth, 1933).
- Haight, Gordon S., *George Eliot : A Biography* (New York : Yale Univ. Press, 1968).
- (ed.), *The George Eliot Letters*, 9 vols. (London : New Haven and Oxford Univ. Press, 1954 — 78).
- (ed.), *Adam Bede* (Boston : Paperback, 1948).
- (ed.), *The Mill on the Floss* (Boston : Paperback, 1961)
- Hardy, Barbara (ed.), '*Middlemarch*' : *Critical Approach to the Novel* (London : The Athlone Press, Univ of London, 1967).
- (ed.), *Daniel Deronda* (Middlesex : Penguin Books, 1967).
- , *The Novels of George Eliot : A Study in Form* (London : The Athlone Press, Univ. of London, 1959).

- Harvey, W. J., *The Art of George Eliot* (London : Chatto & Windus, 1961).
- (ed.), *Middlemarch* (Middlesex : Penguin Books, 1965).
- Holloway, John, *The Victorian Sage : Studies in Argument* (London : Macmillan, 1962).
- James, Henry, *The House of Fiction, Essays on the Novel*. (London : Rupert Hart — Davis, 1957).
- *Partial Portraits*. (London : Macmillan & Co., 1888).
- Knoepfmacher, U. C., *Religious Humanism and the Victorian Novel : George Eliot, Walter Pater, and Samuel Butler* (Princeton : Princeton Univ. Press, 1965).
- Leavis, E. R., *The Great Tradition* (London : Chatto & Windus, 1948).
- Leavis, Q. D., (ed.), *Silas Marner* (Middlesex : Penguin Books, 1968).
- Lodge, D., (ed), *Scenes of Clerical Life* (Middlesex : Penguin Books, 1973).
- Paris, Bernard J., *Experiment in Life : George Eliot's Quest for Values* (Detroit : Wayne Univ. Press, 1965).
- Stephen, Leslie, *George Eliot — English Men of Letters* (London : Macmillan, 1902).
- Stevenson, Lionel, *The English Novel, A Panorama*. (London : Constable, 1960).
- Stump, Reva, *Movement and Vision in George Eliot's Novels*. (Seattle : Univ. of Washington Press, 1959).